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좁은 길로 행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 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8월 12일 (토) 제 164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카리스마틱독립네트워크(INC)” 을 경계한다!

CT, 기독교 주류교단 성장멈춤 속 상승세 INC운동의 배경과 위험성 소개

미국내 기독교 주류교단의 성장세가 잔폭 움츠러진 가운데, 해마다 3.2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교회들이 있다(World Christian Database, 1970-2010).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지칭하는 목회자들이 웹사이트, 블로그 그리고 대형 컨퍼런스 등을 총동원한 멀티 마케팅을 통해 오소질식 기적들과 은사들을 앞세워 후천년설적인 달달한(?) 낙관론을 선포한다. 뜨거운 찬양과 함께 연단에 올라온 사람들이 속속 쓰러지며,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수만 달러의 헌금도 온라인을 통해 기꺼워 드린다. 이들은 소위 “카리스마틱독립네트워크(INC)” 또는 “INC” 기독교로 명명되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먼저 빌 존슨(캘리포니아 레딩, 베델교회), 마이크 비클(IHOP), 신디 제이콥스(Generals International), 척 피어스(Glory of Zion International Ministries) 그리고 체안(Che Ahn,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HRock교회) 등이 핵심 인물이며, 여기에 이들의 “영적 보살

핌(Spiritual Covering)”을 받는 일단의 목회자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심상찮은 움직임은 지난 3월, 보수적 진영을 대변하는 매체(the Conversation)를 통해 보도됐고(How a Christian movement is growing rapidly in the midst of religious decline), 동시에 책(The Rise of Network Christianity: How Independent Leaders Are Changing the Religious Landscape, Oxford)으로 출간돼 화제가 됐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이 책을 지은 공저자, 브래드 크리스터슨(바이올라대학교 사회학 교수)와 리차드 플로리(USC 종교와시민문화센터 리서치/평가 담당 디렉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동 운동이 왜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왜 위험한지를 밝혔다(The ‘Prophets’ and ‘Apostles’ Leading the Quiet Revolution in American Religion: A Christian movement characterized by multi-level marketing, Pentecostal signs and wonders, and post-millennial optimism).

Q: 변영복운동이나 대형교회 네트워크인 “the Association of Related Churches(ARC)”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크리스터슨: 일단은 변영복 운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기 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물론 변영복 역시 개인 설교자들, TV 목회자들, 그리고 메가교회 리더들로 구성돼 있지만, 협력에는 인색하다.

또한 신학에서도 다르다. 변영복은 개인의 건강과 부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INC”는 하나님이 동 운동의 사도들을 세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트리클-다운(trickle-down)” 기독교로, 사도들이 최정상에 있고 이들을 통해 파위가 밑으로 흘러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모순되게도 이들은 대규모 회중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대신 최정상급 사도들이 강사로 나선 컨퍼런스나 웹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같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자신들의 신학을 팔고 있다.

플로리: 이들은 쉽게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바로 선지자 서비스 모델을 통해 자신



기독교 주류교단이 성장을 멈춘 상태에서 카리스마틱독립네트워크는 매년 3.2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

들의 교회나 웹사이트, 블로그를 운용하기에, 사람들의 헌금이나 기부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기존의 교회 소득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로, 많은 돈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다.

Q: 동 운동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는가? 오소질? 카리스마틱? INC 크리스천들?

크리스터슨: 이들은 “예언적” 또는 “사도적”이라는 단어를 목숨을 건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사도 중 한 사도라고 여긴다.

따라서 동 운동에 속한 크리스천들은 “나는 빌 존슨, 마이크 비클 또는 신디 제이콥스의 추종자다”라고 말한다. 또 “그는 내 사도다”,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3면으로 계속)

“당신은 어떤 유형?”

킵츠, 지구촌 사람 1/4 이상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의 4가지 유형 소개

전세계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가까워지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페이스북 사용자(월 1회 이상 접속 기준)가 20억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우리는 세계를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서로가 더 가까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런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소감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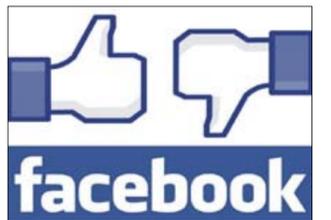
전 세계가 인구가 75억 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전세계 인구의 4분의1 이상이 페이스북을 통해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 ‘인스타그램’까지 더하면 전세계 SNS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점유율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이용자는 15억명, 중국 텐센트의 메신저 서비스 ‘위챗’은 9억명 수준이다.

페이스북 이용자 수 증가 속도도 눈길을 끈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출시 13년 만에 10억 명을 넘었고, 그로부터 5년도 안 돼 20억 명을 돌파했다. 페이스북은 별도 자료를 통해 하루 평균 1억7500만 명의 페이스북에서 ‘최고예요’ 버튼을 사용하고, 8억명 이상이 ‘좋아요’를 공유한다.

따라서 SNS 관련 연구 단체들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4가지 유형들이 있다는 결과를 밝혔다(There are only four types of Facebook users, researchers have found).

페이스북에게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모두 “팔 수 있는 데이터 묶음”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고객에게 이 거대한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는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누군가는 먼 곳에 사는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홍보하기 위해, 또는 단순히 귀여운 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수동적이라, 자신의 지인과 일부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TV쇼를 보듯 타임라인을 지켜본다.

“국제가상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킹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Virtual Communities and Social Networking)”에 실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에는 라쇼몽 효과(Rashomon effect)가 있다. 즉 각기 다른 이용자 집단이 페이스북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며 그 경험을 해석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이용자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논문을 발표한 브리검영대학의 연구진은 조사 대상에게 “페이스북은 스트레스의 원천이다”, “페이스북은 도움을 구하거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등을 포함한 48개의 문장을 주고 동의 여부를 물었고, 추가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특이한 점은 대상이 단 47명뿐이라는 점이지만, 연구진은 분류와 통계, 요인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탐구하는 방법인 “Q 방법론”을 채택했기 때문에 적은 샘플로도 분명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p>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p>	<p>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오펜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p>	<p>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p>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 룬 은회근 목사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청교도 신앙 이윤석 목사	 인터뷰 CTS 인터내셔널 회장 주대준 장로
---	---	--	--	--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빠져 나오라!

체치리더스.컴, 케리 니호프(Carey Nieuwhof) 목사의 힘든 상황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방법 소개

여러 상황이 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항상 그에 어떤 식으로든-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반응한다. 생각해 보자. 당신의 인생 중에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는가? △삶을 충족시키는 근로 환경? △건강한 삶? △행복한 결혼 생활?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이해심 많은 상사? △스트레스? 중요한 것은, 인생을 돌아볼 때 완벽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진지하게 돌아볼 것도 없다. 오늘 날서 때문에 짜증나고, 공공 장소에서 떠드는 사람 때문에 화나고, 오늘 해야 할 일도 너무 많다. 하나님께 내 인격을 정말 시험하고 싶으신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될 정도다. 올해 들어 "성공하는 지도자의 7가지 습관(7 Habits of Highly Effective Leaders)"을 다시 읽고, 수많은 팟캐스트 인터뷰를 들으며, 다음 주제를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왔다. '성공하는 지도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다르게 상황을 다룬다'는 것이다. 뭐가 다를까? 최소 세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성공하는 지도자를 따라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시도해 보길 바란다(3 Ways Great Leaders Handle Tough Circumstances Differently).

1. 상황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음번에 어떻게 할지를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 오늘, 또는 매일, 주어진 상황에 자신을 그대로 맡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다음처럼 너무나 안이하게 반응한다.

"음, 난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러면 좋겠지만, 나 좀 이해해 줘." "그리고 싶었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분명 그것만 아니었다면 성공했을 거야." "... 할 수 있었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상황을 변화시켜라
장애물 넘어 하나님 신뢰하며 기회를 잡으라
성공은 계속되지 않는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라

을 텐데."

상황을 직면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일까? 그 상황이 이끄는 대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만약 자기 자신을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맡긴다면, 당신은 그 상황에 지는 것이다. 장담하지만, 상황은 당신을 굴복시킬 것이다.

상황은 당신이 왜 그 일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수천 개의 이유와 변명거리를 만들 것이다.

상황은 당신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설득하고, 그 결과 당신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필연적인 운명론에 굴복하는 것이다. 문제를 그대로 두면, 상황을 아무렇게나 대처하게 되고, 아무렇게나 살게 된다. 자신을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2. 장애물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기회를 찾으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힘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찬 이야기가 항상 있다. 이상에 가장 가까웠던 유일한 시기가 예전동산에서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망쳐 버렸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것으로 사용하셨다:

△문제 있는 가정(예를 들면, 요셉 이야

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했다. 바로 이 점이 이들이 위대한 이유이다.

3. 성공으로 자만하지 말라.

알고 있다시피, 모든 상황이 문제적이거나 한 것은 아니다. 가끔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인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바로 이때가 자기 자신을 (어려울 때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할 때이다. 이런 상황 역시 당신을 성공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한 번 짚어 보자.

(9면으로 계속)



시론

긍정의 힘-바베포바



은희곤 목사 (참사목교회)

남아프리카에 '바베포바'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실이 주목하게 된 학자들은 이 부족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이유를 발견합니다. 이 부족의 특별한 전통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생기면, 그를 광장 한복판에 세웁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여들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시작합니다. 비난이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거에 했던 미담, 감사, 선행, 장점 등등의 말들을 한마디씩 쏟아냅니다. "넌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우리 집 지붕을 네가 고쳐줬잖아 고마워!" "지난번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없어 굶고 있었을 때 네가 우리 집 앞에 음식을 놓고 갔잖아!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등등... 그렇게 칭찬의 말들을 쏟아내다보면 마을 한복판에 서있던 죄자는 사람들 점점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한명씩 다가와 안아주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용서해줍니다. 그런 후 그가 새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는 축제를 벌이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이 마을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런 축제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일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정죄하기 바쁘고 신나며, 무리 지어 심판하는 요즘 세대와 사람들에게 경이로 됩니다. 당장 우리 사회에 적용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가족끼리라도, 교회에서라도 먼저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 문제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 오히려 만만의 방어 준비를 갖춘 사람들을 향해 칭찬해주고 축복해준다면 아마 가정도, 교회도 말씀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나아가 점점 확대되어져 사회 전체에 "바베포바"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가 낳은 저명한 소설가 생텍쥐페리의 "인간을 사랑할 것. 아무리 나약한 인간이나 초라하고 불쌍한 인간도 사랑할 것.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지 말 것"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의 힘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5톤이 넘는 범고래도 춤추게 만듭니다. 강원희님의 "나를 찾아가는 감성 치유"에서는 이러한 "긍정의 힘을 기르는 4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지나간 일에 대해 감사하고 용서하기. 지나간 과거는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뿐입니다. 따뜻한 기억을 되새기며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켜보면 감사할 일들도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일에 감사하고 용서하다 보면 부정적인 과거일지라도 긍정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현재의 삶을 즐기고 누리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현재의 삶 자체를 즐기는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한 번 돌아켜봐야 합니다. 지나버린 과거도 아니고 닥쳐올 미래도 아닌 지금의 삶을 누리십시오. 여기에서 삶의 만족을 추구하십시오.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삶을 누리면서 미래의 소망을 차근차근 이뤄 가십시오. 3)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떨치기.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면 적극적으로 맞서 낙관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이 찾아들면 파릇한 새싹을 생각하세요. 그런 뒤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았던 기억,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던 기억,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되새기며 존재감을 회복하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듯 이 시기가 지나가면 내 인생에도 봄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4)자신감 있었던 때의 나 떠올리기. 누구나 생동감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풀려갈 때면 자신감에 차 있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그 당시 당당했던 내 모습을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나는 나야', '난 소중해', '난 할 수 있어'와 같이 자신을 격려하고, 내 안의 열정을 일깨워줄 수 있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여 서서히 차올라 설렘과 의욕을 느낄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긍정의 감정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욱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유쾌, 행복... 긍정의 감정은 연습할수록 커집니다. 매일 매일 이 긍정을 연습하면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운 여름, 짜증나기 쉬운 이때 나 스스로 긍정의 힘을 향상시켜, 내가 있는 그곳이 가정인데, 교회든, 단체든 어느 곳이든 그런 내가 있기에 "바베포바"의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pastor.eun@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p>학위과정 Degree Programs</p> <p>ESL Program</p> <p>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p> <p>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p> <p>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p> <p>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p>2017년 항공학과 신설</p> <p>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p> <p>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p> <p>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p> <p>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p> <p>문의: 전화 (636) 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p>
--	---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카리스마틱독립네트워크(INC)”을 경계한다!

(1면에서 계속)

그리고 동 운동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용어는 바로 “영적 보살핌(Spiritual covering)”으로 나는 내가 따르는 특정 사도의 영적 보살핌 안에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관련된 용어로 “영적 전이(spiritual impartation)”, 사도들의 파워가 나에게 전이된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파워를 받고 그 파워가 나에게 내려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또는 비밀적 파워의 전이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식 기관이나 교단을 의식적으로 꺼려한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주최하면서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마케팅을 벌인다.

Q.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가 되는가?

크리스티슨: 모든 과정 자체가 자신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도로 인정되는 근거(?)는 자신이 맡은 회중과 다른 리더에게 영향을 줄만큼 파워가 있으면 된다. 비슷한 사례로, 신사도운동의 리더인 피터 와그너는 자신을 “대사도(Super apostle)”라고 지칭했다. 바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다른 사도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인제사장” 원리는 통하지 않는다. 사도들의 정점에 있는 슈퍼 사도는 문자 그대로 만인제사장으로 영적 대제사장으로 모든 행정과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

한편 모함과 제미를 동경하며 “의미”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 대해 전통적인 교회 모델은 100% 충족을 못준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선한 삶을 살며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신앙을 나누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을 우주적 영적 전투의 일원으로 세상을 변화케 만든다고 믿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장 무엇을 하라고 말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 영적 사도는 그러한 힘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 서신에 있는 그리스 단어까지 담긴 45분짜리 설교보다 훨씬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운동은 최 정점에 있는 사도로부터 하위 사도 그리고 평신도까지 영적 파워가 내려오는 또한 전이되는 계층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제도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기독교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 바로 이러한 참여적 측면이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주요인이다.

Q. 많은 대형교회에서는 전통적인 예배대신, “경험”을 말한다. INC는 어떠한 경험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크리스티슨: 전통적인 대형교회들은 경배 찬양과 훌륭한 설교가의 흥미진진한 설교를 사용한다. 그러나 INC 진영에는, 놀랍게도, 그다지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지 않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바로 초자연적 현상이자 표지로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경험이다. 한마디로, 설교보다는 동 운동의 사도가 자신에게 손을 얹고 힘을 받고 병에서 치유되며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만을 바랄 뿐이다.

Q. INC 리더들이 방송국이나 방송 시간을 구입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하는가?

플로라: 첨단 디지털 기술 특히 스마트폰 앱 사용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디지털 접속만 되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한정 이들의 메시지를 듣거나 볼 수 있다.

크리스티슨: 또한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자신들의 메시지가 담긴 상품을 접할 수 있다. IHOP이 이 점에서 뛰어나다. IHOP 웹사이트는 시청이나 구독물에 있어서 전세계 탑 50개 웹사이트 중 하나일 정도다.

온라인과 컨퍼런스를 사용하면서, 이들은 스타디움에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규모로, 아주 신나며 결코 잊지 못할 무대를 준비한다. 다시 말해서, 4-5명의 유명 사도들을 결합해 자신들을 따르는 교인들을 모두 동원하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인터넷 화면으로만 대하던 사도들의 파워를 경험하게 되고, 그 파워가 나에게까지 전이되는 것을 느끼면 세상이 달라진다. 따라서 주말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다저스 구장이나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비공개적으로 열리는 IHC 집회에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이 백배 나아보이게 된다.

미국인들에게 또한 이들의 복음이 먹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7산맥 신학”이다. 이들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은 삶의 모든 영역인 7산맥 즉 비즈니스, 정부, 미디어, 예술/연예, 교육, 가정 그리고 종교를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산맥들 뒤에 계시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최고위직에 임명시키셔서 미국과 온 누리를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신다. 즉 부대통령인 마이크 펜스나 교육부 장관인 베스티 디보

스 그리고 벤 카슨 같은 크리스천이 그 실제 인물이 된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정책적인 목표도 없고, 반 낙태나 반 동성결혼 같은 어젠다도 없다. 물론 빈곤 퇴치나 국제적 갈등을 방지할 전략도 없다.

플로라: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낭만적 비전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내내, 대부분의 오순절주의나 복음주의는 전천년설 입장을 견지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재림직후에 온전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INC 운동은 전적으로 후천년설을 지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땅에 그것도 바로 미국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해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미국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나가는 낭만적이고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Q. 많은 INC 사도들이 성공을 이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초점을 받기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크리스티슨: 일반 언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신들의 네트워크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디어에 기자 회견이나 보도 의뢰를 보내지 않는다. 실제로, 2016년 4월 LA 콜로세움 스타디움에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운집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Asuza Now conference). 만약 비판 오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5만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가 LA타임스에는 한 글자도 보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 운동은 일반 미디어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신들만의 채널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미국 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달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경험을 중시하는 은사주의운동 즉 신사도운동의 첨단 형태인 INC운동이, 체험적 신앙을 갈구하는 크리스천들 사이에 급속히 세력을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신비주의적 체험과 사도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체계적인 검증과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따르는 목회자들과 교인이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인교회들은 영적 분별과 더불어 건강한 성령 운동의 확산을 위해 더욱 기도하면서, INC운동이 주는 도전들에서 승리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쇼핑을 하는 타입(Window shoppers)

“사회적인 책임감”으로 페이스북을 하는 부류로, 이들은 페이스북을 현대인의 삶에서 도망칠 수 없는 일부로 인식하지만 개인 정보나 사진, 글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는 경우도 거의 없다.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의 프로필을 페이스북에서 찾아보고 그 사람의 관심사와 연애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고 지내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할 수 밖에 없다”와 같은 말에 동의한다면 이 타입에 해당한다.

(5면으로 계속)

소망 칼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주님은 “이후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많은 지성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마다하시고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택하셨는가? 그는 겸손하게 자기를 볼 줄 알았기 때문이다. 솔직하고 진

실행했기 때문이다. 순종하는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미련한 자를 택하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전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것을 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으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낮추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진실한 종들을 택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라는 말이 있다. 누구든지 어찌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실패하리라는 법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단 한 번의 그물을 쳐서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도전하게 될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낚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은 저능아라는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쫓겨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여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 인류 문명에 큰 봉헌을 한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4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하고 7살 때까지 글도 읽을 줄 몰랐지만 후에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다. 베토벤(L.Von Beethoven)은 학교 다닐 때 음악에 대한 재능이 없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후에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다. 월트 디즈니(Walt Disney)는 너무 가난하여 교회 지하실에 쭈그려 앉아 자신을 비판하면서 지낼 때도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키 마우스 그림을 그려 마침내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이 지구상에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가 된 것이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15:22)는 말씀과 같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먼저 기적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순종을 원하십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써 말미암아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게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내 이성 상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믿을 때 풍성한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빈 그물, 빈 배로 굶주리고 회의와 의심 가운데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신의 한계성을 넘어야 한다. 그레아만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은 영적인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전쟁 중에 병사는 질문하지 않는다. 오직 명령에 충성한다. 충성할 때 필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용기가 필요하다. 말씀에 순종하라. 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nammicj@hanmail.net

“당신은 어떤 유형?”

(1면에서 계속)

4가지 타입에 대한 설명을 읽다보면 자신의 페이스북 사용 방식이 하나 이상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가장 비슷한 한 타입이 보인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다만, 조사 대상은 18-32세의 미국인에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다른 나이 집단에서는 다른 사용자 타입이 존재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 사용 방식과 온라인 행동 양식이 살면서 바뀌기도 한다. 어쨌든 연구진이 파악한 4가지 타입은 다음과 같다:

관계를 형성하는 타입(Relationship builder)

이 타입은 페이스북을 전화나 메일처럼, 즉 기존의 가족, 친구 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페이스북이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게, 또 가족이 나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에 동의한다면 이 타입에 해당한다. 즉 페이스북을 열린 가상의 사회적 공간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 가족과 친구 사이에 정보가 흐르는 미니 허브로 본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없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안부를 전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특징은 사진과 영상을 많이 올리고, 또 많이 본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올린 포스트에 댓글을 달거나 대화에 참여



GRACE THEOLOGICAL SEMINARY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ck Lee(이민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원 씩(One thing)

“여러 가지 일을 벌이기보다 가 능하면 원 씩(one thing), 한 가지 에 집중하라.” 애플에서 크게 사업하시는 어느 교포 사업가가 동료 사업가에게 준, 사업에 대한 조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 비즈 닌스 네트워크(CBN) 모임에서 들

었던 이 말, 즉 ‘원 씩’에 집중하라는 한 사업가의 조언이 늘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한 저의 뇌리를 떠나 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시간을 다투는 촉박한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시

간이 부족해서 멀티태스킹(다중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폰이 보편화되면서 멀티태스킹은 우리의 삶 속에 급속도로 생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전화를 받으면서 메신저를 보내고, 음악을 감상하면서 온라인으로 책을 읽고,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요즘처럼 멀티태스킹 능력을 강조하는 세상에서는 원 씩,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모노태스킹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생산적,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MIT의 신경 과학자인 얼 밀러(Earl Miller) 박사는 ‘우리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때, 실제로는 단지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매우 빨리 전환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때때로 멀티태스킹을 할 때마다 인식의 비용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디로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인간의 뇌를 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모노태스킹의 유익함을 주장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지요. “매일 같이 당신도 무언가를 한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하루에 16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경우,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 만약 한 가지 방향과 일에 열중할 수 있다면 성공할 것이다.” 이처럼 그가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발명왕이 된 비결은 원 씩, 한 가지 일에 집중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원 씩, 한 가지에 집중이 필수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책, TV 프로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수많은 매체를 통하여 정보, 뉴스, 기발한 아이디어, 노하우, 기술, 지식, 그리고

성공의 법칙과 비법을 쉽게 얻고 배울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익한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개혁도 ‘근본으로 돌아가자’(Ad Fonte),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따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원 씩, 곧 예수님을 아는 일, 이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 계 명 (Great

Commandment)과 대사명(Great Commission)을 이루는 예수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원 씩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를 안내하는 등불이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일, 이 일 한 가지에 집중합시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 3:8-9).

푸/른/초/장

이풍삼 목사
(한인동산장로교회)



몇년전, 시계 약(battery)이 떨어져 맨해튼 33가(Madison과 5 Ave 사이)의 시계 수리점에 들렀습니다. 온화한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60스퀘어 피트 정도의 작고 좁은 시계 수리점이었습니다. 수리점 아저씨가 죽은 시계를 이리 저리 살펴보고, 뒤 뚜껑을 열고, 악을 갈고, 먼지를 닦고, 그리고 제 손에 시계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때 그 시계가 저에게는 낯선데도 물린 심상한 고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리점에 들어갈 때는 죽었던 시계였는데, 살아서... 수리점에 들어 갈 때는 먼지가 많이 낀 시계였는데, 이젠 반짝거리며... 이 작은 시계 수리점에서는 죽어 멈춘 시계가 살아 나오고, 약이 떨어져 발빌거리던 시계가 팔팔하게 살아 나왔습니다. 좁아서 답답할 수도 있는 곳이지만 죽은 시계를 살려내는 데는 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 비좁은 곳에 잠시 머물며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새 힘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상처 받은 영혼들을 다시 잘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하는 곳이 어디

인가? 죽은 시계는 시계 수리점에 보내기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들을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모인 우리들을 교회라고 불러 주십니다.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영혼들, 상처 받은 영혼들을 치료 하는 세상의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영혼들을, 상처 받은 심령들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는가? 성경은 ‘예수’라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고쳐지고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면 예수가 쉽게 믿어지는가? 라는 실질적인 문제가 그 다음에 생깁니다. 여기부터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 당시의 민수기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4-15).

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민21:5). 이에 하나님께서는 불 뱀을 백성 중에 보내 그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민21:7).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민21:8)라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뱀뿔을 만들어 장대위에 달고 뱀에

적으로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치료법이기에 때문입니다. “보면 살리라”라는 이 명령은 어찌 보면 가장 쉬워 보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행하기 어려운 명령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뿔을 쳐다보고 살았다(민21:9)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뱀뿔을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보면 산다”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

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치로 행하시려 어려우 명령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뿔을 쳐다보고 살았다(민21:9)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뱀뿔을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보면 산다”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

“보면 살리라”라는 이 명령은 어찌 보면 가장 쉬워 보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행하기 어려운 명령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뿔을 쳐다보고 살았다(민21:9)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뱀뿔을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보면 산다”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

저도 이렇게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 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 하나 내어 놓을 것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믿기 위해 대학 갈 필요도 없고, 믿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이유도 없습니다. 선행으로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뱀에 물린 자들이 광야에서 뱀을 쳐다보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 습니다. (5면으로 계속)

보면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4-16절)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채 목사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간을 이 일에 집중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기록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제자훈련을 십수 년 간 해온 목사가 보여주지 않는 가르침은 힘이 없다는 고백을 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첫 마디가 "전도사님이나 나나 비슷하네" 하고 그 길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주머니의 지옥을 변하여 천국을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합한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함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어떤 권세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영접하게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악한 자가 우리를 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다. 요한의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왕이 오셨다는 것이다. 고대에는 왕이 곧 나라였다. 또 왕국으로 번역된 말은 왕권이란 말로 사용된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늘의 왕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지금부터 96년 전에 우리는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여기서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땅, 우리 백성이 그대로 있어도 우리가 나라를

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특별 법칙이 자연의 일반법칙을 누른다. 물위로 걸어가게 되고, 하루 밤 사이에 산헤립의 18만5천명이 다 송장이 되는 역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대상황을 이길 믿음

우리 시대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도 너무 무능력한 것 아닌가? 과연 술과 성의 쾌락에 취한 청년들에게, 돈 버는 재미에 취한 성인들에게, 깨어진 가정에게, 어떠한 효과적인 처방을 주고 있는가? 능력이 없으면 변론만이 무성하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세상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믿음의 능력 -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기 전에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셨다. 오늘날 많은 변론하는 제자들이 많음을 본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무수한 변론보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서기관이 되어야 할 제자들이 그저 변론만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신다.

조용기 목사가 전도사로 개척할 때의 이야기이다. 쪼여지게 가난한 한 아주머니 댁을 방문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좋아하네.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진짜 있으면 그 좋은 천국 좀 때어서 지금 왜 안주냐?" 할 말이 없어진 전도사님이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했단다. 그러자 즉각 반응이 나왔는데, "지옥 좋아하네, 나는 벌써 지옥에 와 있어"라고 했다.

할 말이 없어서 천막교회로 돌아온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라고 하시면서 할 말을 담아 주었다. "아주머니, "왜 또 왔어?" "사는 게 지옥 같지요? 예수 믿으면 지옥이 천국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선 아주머니가 논 한 가운데 있는 천막교회를 보더니

짜하지 못한다. 교통순경이 목사가 운전하는 차를 세워서 음주측정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 죄가 없어도 성찬식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목사는 섬뚱하다. 진짜 무당이라면 예수 믿는 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권세가 있으니 이 권세에 대한 다른 권세, 다른 법이 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 교통순경의 통제를 받지 않는 뺑소니차가 있기에 경찰차가 필요한 것이다. 경찰에게 총을 쥐어준 것은 흉악한 범죄자가 있기 때문이다. 죄와 사명의 법이 있고,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흔들다. 배는 원래 물에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풍랑은 배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배가 동력을 잃으면 즉시 물에 삼키게 된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배가 돌력을 잃지 않으면 파도를 헤치고 나아간다.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신 것 때문이다. 이런 유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려고 하는 유이다. 이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을 시험하러온 귀신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도 계속해서 다른 종류의 시험으로 거듭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잠시 떠난다고 했다. 세상에서 악한 세력의 상존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이다.

다스리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다스리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그 나라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피조물을 통치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인간 외의 피조물은 인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간접적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이미 있다고 말씀하신다.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나 예수께서 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로 보다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분명해진다.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다 하는 의미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다 오셨다는 의미이다. 문 앞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와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다. 예수께서는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라고 하신다. 하

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다. 귀신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할 때 말이 많아진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의심치 않는다고 스스로들 생각은 하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충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음은 믿지 않는다. 자기 중을 고치고자 예수께 나아 온 백부장의 믿음의 행위와는 정반대이다. 다만 말씀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함께 계시 때는 제자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막9:19) 하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믿음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제자들이 깊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기대하셨던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는 크신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이다. 크신 하나님을 믿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더하시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예루살렘성이 로마 마도 장군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결정적 원인과 멸망할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었는지요?
-팔로스 버디스 김준경 권사

A: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제국은 기본적으로 피지배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며 통치자로서 균형을 유지했으나, 다신교 문화인 지중해 세계 안의 그리스나 에스파냐, 갈리아, 북아프리카와는 달리 유대 속주는 유일신교라는 독특한 종교 문화를 지닌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유일신교를 이유로 동화를 거부하며 로마와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당시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폭리가 취해졌고 둘째, 그로 인해 불만이 높은 상태에서 이교도인 로마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을 임명하자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셋째, 39년경에 칼리굴라 황제가 자신이 스스로 신을 자칭하며 황제 숭배를 위해 제국 전역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는 중에 유대인의 성전에 황제 신상을 세우게 한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의 민심은 폭발해 버렸습니다. 유일신 아훼 하나님 외에는 주(主)가 없다고 믿어온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의 황제를 우상화하는 로마제국의 종교정책을 거부하고, 무장봉기를 준비했습니다. 유대 열심당원들은 로마인이 세운 대제

로마 1차 침공 때 기독교인들은 요르단 펠라로 피신

사장들을 집단살해하고, 성전세로 민중들을 수탈한 죄의 증거인 제무 문서를 불태워버림으로써 로마제국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었습니다.

시대악화에 놀란 로마는 이스라엘을 진압할 인물로 전투에 노련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파송합니다. 6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한 그는 예루살렘 성을 진격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갑자기 로마군대가 퇴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로마군대가 도망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취한 유대인들은 축제를 하고 기뻐합니다. 사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퇴각이유는 로마황제 네로의 자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후 70년경에 네로의 뒤를 이어 자신이 황제로 추대되자 골치거리인 예루살렘의 문제를 자기 아들 디도에 맡겼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은 8만의 군대를 이끌고 치밀한 계획아래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장기 포위 작전으로 식량공급을 차단하자 결국은 성안에 굶주림과 전염병이 창궐하여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고 110만명이 죽고 9만7천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후에 유대민족들은 전 세계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참혹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1차 침공인 베스파시아누스의 퇴각으로 승리의 기쁨에 취해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현재의 요르단 산 쪽인 펠라(요르단의 Petra)로 도망해서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곳은 장엄한 화강암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싸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이 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밖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래서 68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둘러싸이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펠라 산 쪽으로 도망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이런 우리들에게 큰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본즉 살리라"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두 말 사이에 어떤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이 두 말이 저절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연결 고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지만, 누군가가 "보면 살리라"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본즉 살리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면 살리라"라는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른 누군가의 귀에 전해지지 않으면, "본즉 살리라"의 간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어야 산다 라고 말해주어야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늘나라 가시면서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이 사건을 먼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큰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 주고 가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오늘도 주위에 죽은 뒤에 어디 가는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의 기계 문명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보면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본즉 살았듯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으리라 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우나는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되지만, 뜨거운 온탕도 뜨겁고 들어갔다 너무 뜨거우면 튀어나오면 되지만, 지옥은 한 번 행차하면 다시 돌아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 명령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whitestone05@gmail.com

"당신은 어떤 유형?"

(3면에서 계속)

이 타입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은 이렇게 많았다. (선택지가 있다면) 페이스북 밖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나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난 토요일에 뭘 했는지 페이스북을 보고 알기 보단 토요일에 함께 시간을 보냈겠지요."

마을 소식을 알리는 사람(Town criers)

이 타입에 해당하는 이들은 자칭 또는 전문적인 저널리스트, 활동가, 행사 연출가 등으로, 페이스북을 일종의 연단(soapbox)으로 생각하는 부류이다. 첫 번째 타입과 달리, 페이스북에서 구축한 가상현실은 자신의 실제 삶과 다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느끼는 정보

를 알리는 것이 페이스북 사용의 주 목적이지만 어떤 피드백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타입은 큰 이슈가 있을 때 알람을 울리고, 최신 유행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 같은 활동에 페이스북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대선 등 세계적으로 대형 정치 이벤트가 많았던 최근 몇 년을 기점으로 페이스북이 영향력 있는 뉴스 유통 채널로 급부상한 것은 이들의 지속적인 포스팅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기세에 더욱 약화되고 있는 종이 신문이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컴백한다 해도,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릴 사람들 역시 이 부류일 것이다. 당연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들은 늘 페이스북 상에서 기사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느끼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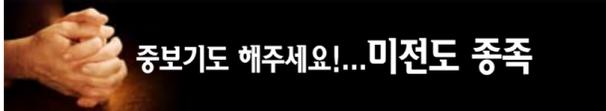
대하지만 사적인 정보는 거의 밝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고 지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개적인 페이스북 답변력이 아닌 전화 통화나 문자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가족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 타입에 해당하는 한 조사 대상자의 말이다.

셀카족(Selfies)

네 번째 타입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셀카족이다. 소셜 미디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글을 탄생시킨 주범이자, 밀레니엄 세대에 자아도취자의 오명을 씌운 바로 그 부류이다. 이들이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기능은 첫 번째 타입과 비슷하다. 사진과 비디오를 올리고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그러나 주목적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좋아요와

댓글을 큰 에너지원으로 삼으며, 더 많은 좋아요를 사회적 인정으로 해석한다. "사진을 찍어서 내 폰에 해지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개적인 페이스북 답변력이 아닌 전화 통화나 문자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가족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 타입에 해당하는 한 조사 대상자의 말이다.

결국 이들은 온라인상에 노출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정확하든지 저장해두면 아무 소용없지만,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과시한다고 해도 실제 관계는 다를 수 있고, 실생활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페이스북에서는 열정적으로 기사를 공평하게 논쟁하는 특징은 아니다.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과시한다고 해도 실제 관계는 다를 수 있고, 실생활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페이스북에서는 열정적으로 기사를 공평하게 논쟁하는 특징은 아니다.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과시한다고 해도 실제 관계는 다를 수 있고, 실생활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페이스북에서는 열정적으로 기사를 공평하게 논쟁하는 특징은 아니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기니비소의 비아파다(BIAFADA)



기니비소의 비아파다 종족은 대체로 텐다(Tenda) 종족의 산하 종족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남루(Nalu) 근처 중남부 지역에서 기니 국경 지대에 걸쳐 거주한다. 아프리카의 이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종족 그룹들은 대부분이 세네갈과 감비아에 거주하므로 집합적으로 세네-감비아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러는 기니, 기니비소, 말리 그리고 모리타니아에

살기도 한다. 기니비소는 국토의 대부분이 낮은 늪지대의 해안 평지이며 내륙을 향해 완만하게 솟아올라 동부 지역에 평원을 형성해 남동부 지역은 최고 해발 1,070피트까지 이른다. 나라 전역에 걸쳐 발란타족(Balante), 풀라니족(Fulani), 페펠족(Pepel), 말린케족(Malinke) 그리고 만디아족(Mandyak) 등의 주요 종족을 비롯한 30여 개의 종족 그룹이 있으며 케이프 버디안 사람들(Cape Verdians)은 소수이나 주요한 소수집단을 형성한다. 기니 비소의 공식 언어는 포르투갈어나 포르투갈어와 아프리카 언어의 혼합인 크레올어가 통

용된다. 비아파다 종족은 니제르-콩고 어족에 속한 비아파다어를 사용한다.

삶의 모습

기니비소의 초기 역사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나라 안의 주요 종족 그룹은 12세기경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1446년 포르투갈 노예상인들이 이 지역을 둘러본 후 기니비소는 노예무역의 주요 기지가 됐다. 서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종족들처럼 비아파다 종족 역시 농부들로서 원시적인 농기구들을 사용하며 다양한 종류의 곡식을 재배한다. 옥수수, 카사바, 쌀 등의 주요 곡물을 비롯해 호박, 멜론, 고구마, 고추 토마토 등의 채소류와 바나나, 코코넛, 망고 그리고 파파야 등의 과일류를 재배한다. 소, 양, 염소 등의 가축을 사육하나 젖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농가

에서 개, 닭 등을 볼 수 있다. 사냥은 농사보다 덜 중요하나 야생으로 얻는 과일, 뿌리류, 딸기류, 플라넛, 시아넛, 또한 팥넛 등에 많이 의존한다.

비아파다 종족은 중정을 사이에 두고 원형으로 배치된 작은 움막집들로 구성된 컴파운드에서 확대 가족 단위로 산다. 각 컴파운드는 대체로 울타리나 담으로 둘러 경계를 지으며 이러한 컴파운드들이 윤집해 조밀한 촌락을 구성한다. 비아파다족의 가옥은 일반적으로 진흙 담으로 둘러쳐진 원형 또는 원뿔형의 초가 형태이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양들이 있다.

비아파다족 공동체에서는 사냥, 고기잡이, 농지 경작 그리고 가축 사육 등은 남자의 일이며, 여자들은 농사일을 돕고 야생열매를 수집하는 일을 한다. 추장은 촌락에서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며 추장의 지위는 그의 사후에 남동생이나

순위 누이의 장남에게 승계된다.

남자의 할례 의식이 여전히 시행되며 일부에서는 여자 할례의식도 계속 치러진다. 이러한 의식들은 사춘기의 성인식과 주로 연관되며 대체로 격리된 "숲속 학교(Bush School)"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갖게 되는 일련의 훈련을 포함한다. 이전에 텐다(Tenda) 종족은(비아파다 종족의 상위 그룹인)의 식적인 식인 풍습이 있었다.

비아파다 사람들은 여자들의 자유로운 혼전 상관계에 대해 관용적이며 결혼상대로 사춘을 선호한다. 신부대로 가족, 일반적으로 돼지를 지불하며 결혼 전 의무적으로 배우자의 집에서 일정기간 노역 봉사를 한다. 일부다처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행해지는데 이 경우에는 각 아내들은 각자의 움막집을 갖게 되며 남편은 순번을 정해놓고 각 아내들과 동침할 의무를 지닌다.

신앙

기니비소는 인구의 대부분이 전통신앙을 따라 종족 고유 신앙을 믿는다. 전체 인구의 41%가량(대다수가 풀라니족과 말린케족)은 무슬림이며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11.3%에 지나지 않는다. 비아파다 종족의 70%는 수니 무슬림이며 나머지는 기독교인 또는 무슬림에도 영이 있다고 믿는 정령숭배자들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비아파다 종족 중 그리스도인은 6% 가량이나 그들의 언어로 제작된 기독교 자료는 없다. 그러나 현재 3개의 선교단체가 이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다. 교회 성장의 촉진을 위한 지도자 훈련과 제자훈련 자료들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무신론자조차 '무신론자는 부도덕' 편견"

세계적으로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지만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신론자는 물론 무신론자들조차 종교적 믿음을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는 욕구를 막는 보호장치로 여긴다고 미국 캔터키주립대 렉싱턴 캠퍼스 심리학과 윌 제베이스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이 밝혔다.

연구는 매우 세속적인 나라로 분류되는 중국과 네덜란드에서부터 종교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인도 등 5개 대륙 13개국 출신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참가자들의 출신국은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아예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훨씬 많은 나라였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악인을 제시했다. 이 악인은 어린 시절 동물을 학대하고 자라나 교사가 된 뒤에는 노숙자 5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연쇄 살인범으로 묘사됐다.

연구팀은 참가자 절반에게는 이 가상의 악인이 특정 종교를 믿는 신자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그가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연쇄 살인범이 무신론자일 것이라는 응답이 특정 종교 신자일 것이라는 응답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제베이스 교수는 "무신론자들조차 직감적으로 반(反) 무신론적 편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데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현상은 아마도 깊이 내재한 진 종교적 규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세속적인 지역에서조차 사람들은 여전히 직관적으로 종교는 도덕적 보호장치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무신론자에 대한 불신은 미국이나 UAE, 인도 등 특정 종교 신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세속적인 국가에서는 무신론자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함께 연구를 진행한 에리조나 주립대 심리학과 애덤 코언과 조던 문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무신론자에 대한 팽배한 반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과학전문지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 최신호에 게재됐다.

"페이스북, 당신은 제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사람들을 연결시켰지만 이제는 교회에 가는 인원이 점점 줄고 있어요. 앞으로는 페이스북이 교회를 대신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공동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6월 22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페이스북 커뮤니티 서밋에서 한 발언입니다. 당시 교회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미국의 크리스천 블로거가 최근 '페이스북, 당신은 제 교회가 아니에요'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주인공은 에린 데이비스는 미국에서 크리스천 작가와 블로거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유명인이다. 지역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내 이름은 에린' 시리즈나 '연결하세요, 아름다운 만남'(Connected, Beautiful Encounters) 등의 책을 썼다.

그녀는 자신의 글이 페이스북을 비하하고 교회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교회와 페이스

북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저커버그가 최근 목표로 내세운 '세계를 좀 더 가깝게'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페이스북이 발표한 월 사용자는 무려 20억 명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기독교인은 22억여명을 상회하고 있다.

에린 데이비스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기독교도가 아닌 종교인 보다 많다"면서 "이는 전 세계 4분의 1의 인구가 매달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페이스북이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교회는 실제적인 형상이기 때문이다(The Church is physical). 그녀는 사도행전 2장42절의 말씀을 예로 들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즉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서로 다른 성도와 교제하며,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고백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온라인으로도 이런 나눔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녀는 온라인 교제가 실제로 이웃과 만나 교제하는 것을 절대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스크린 속에 존재하는 페이스북의 공동체는 손에 손잡고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는 행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교회에는 목자들이 있기 때문이다(The Church has shepherds). 그녀는 저커버그의 목자론을 거론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생겨날 것이며 이 지도자를 '목회자'와 비교했는데, 그녀는 성경의 디도서 1장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말씀을 들었다.

장로가 되려면 역경을 이겨내야 하며 아내에게 신뢰를 주고 아이들에게 모범적이어야 하며 자기 제어가 가능해야 하고 주에 복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야 하며 오만하거나 성미 급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폭력적이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갖출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교회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The Church needs you). 마태복음 28장19-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돼있다.

그녀는 크리스천의 삶은 섬김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서는 교회가 없으니 불가능하다. 페이스북에서는 찬양팀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선교 여행을 떠날 수도, 아픈 사람을 방문할 수도,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는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커지기만 할뿐 결코 하나님께 교회를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향해 절박한 메시지를 남겼다.

"존경하는 페이스북에게(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모든 소셜미디어들), 당신은 내 원죄를 씻어주지 못해요. 당신은 내가 주님처럼 살게 하지도 못하죠. 당신은 내 삶에 의미를 채워주지 못하고요. 내 재능을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지도 못해요. 당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당신은 그저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우뚝 서 있을 거예요. 당신은 위트 있는 글들로 넘쳐나는 토론의 장이기도 하고 뉴스를 발 빠르게 전달하기도 하죠. 우리를 웃게도 만들고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해요. 우리 목자가 필요하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하거든요. 페이스북, 당신은 우리의 교회가 아니랍니다."

미, 합법이민 10년 내 절반 줄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족 초청 등을 통한 합법이민 규모를 10년 내 절반 정도로 줄이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톰 코튼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학력, 영어 구사능력, 직업 역량, 연령 등에 따라 영주권 지급 여

부를 판단한다는 새 이민 입법안을 논의했다.



퍼듀 의원 등이 마련한 법안은 합법이민에서 가장 비중이 큰 '가족결합'에 의한 그린카드(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2015년 그린카드 발급자는 105만 여명에 달했는데, 이를 법안 시행 첫해(미정)에 60만 명 정도로 시작해 10년 안에 50만명선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 이민 정책연구소는 2014년 기준 합법적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 가운데 64%가 가족 관계를 활용했다고 집계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의 이민을 지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기술 보유자나, 영어 능통자 등에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합법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어를 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기여할 만한 능력을 갖춘 신청자를 선호할 것"이라며 "21세기 우리의 경쟁 우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스타는 '우울감' 폐북은 '스트레스' 준다

소셜미디어가 삶의 만족도를 하락시키고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그 영향은 소셜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소셜미디어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올린 글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질수도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시사지 '타임'은 3일 소셜미디어가 인간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종류를 최근의 연구와 함께 자세하게 소개했다. 타임은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연구자들이 실제의 삶과 소셜미디어 속의 삶이 지나치게 다른 것을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분교의 소셜미디어 연구팀 책임자 홀리 사카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할 수록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다행히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소셜미디어가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킨다는 연구도 있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소셜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네티컷 어린이 메디컬 센터 연구팀의 공동책임자 안나 베누치는 18-22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셜미디어가 불안증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베누치는 "하루를 기준으로 더 많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쏟을수록 불안증세와 불안 장애의 조짐이 높아졌다"며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스트레스를 악화시킨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스트레스의 양상은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인스타그램 이용자와 페이스북 이용자의 차이점을 비교했다.

베누치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절망감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인스타그램은 팔로어끼리 일상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성격이 강한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에 팔로어의 사진 속 삶이 완벽하고 멋져 보일 수록 우울감에 빠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뉴스가 많이 공유되고 이용자들이 토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보면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불쾌함이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베누치는 "소셜미디어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 뇌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백인 입학 역차별' 대학 조사·소송 검토

미국 법무부가 '백인 역차별'을 이유로 들어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법무부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 시민

권 담당 부서는 "전문 대학과 대학 입학에 있어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과 관련된 소송 및 조사"에 관한 새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물색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대학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법무부 교육기획과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직 공무원들이 배치된 부서에서 총괄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법무부 문건은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인해 차별 받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이라는 표현 등에 비춰볼 때 흑인이나 라틴계에 주어지는 혜택 폐지를 겨냥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해석이다.

소수인종 우대정책 반대론자들은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으로 오히려 성적이 더 좋은 백인이나 동양인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하에서 법무부가 더욱 보수성향으로 기울어진 현실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법무부는 앞서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도 제한하려 한 적이 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로널드 레이건·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시민권 담당 부서를 지낸 로저 클레그 '평등한 기회를 위한 센터' 센터장은 법무부의 이 같은 계획을 "활영한다"면서 미국 사회가 다인종화한 상황에서 "이미 해야 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권법은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그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까지 종종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법적 시민권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LCCRUL)의 크리스틴 클라크 위원장은 시민권 담당 부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억압받는 소수인종이 직면한 독특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범한 부서"라며 해당 부서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재상고 안건을 놓고 찬성 4명 대 반대 3명으로 합친 판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지지하나 다른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버드대 소수인종 신입생, 380년 만에 처음 백인 추월

하버드대학 380년 역사상 처음으로 가을 학기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 가운데 백인이 아닌 학생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보스턴글로브가 3일 보도했다.



전체 2056명의 신입생 중 비백인의 비율은 50.8%로 지난해 47.3%보다 3.5%포인트 늘었다. 비백인에는 아시아계가 22.2%, 흑인 14.6%, 라틴계 11.6%, 북미 인디언 및 태평양 섬 출신 2.5% 등의 순서로 많았다. 아시아계가 제일 많지만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줄어든 것이고, 흑인이 지난해(11.4%)보다 3.2%포인트 비교적 크게 늘었다.

미 타임지는 하버드대의 신입생 비율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들의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지속시킬지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 백인들은 그동안 소수인종 우대정책으로 백인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주요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스턴글로브는 전했다. 하버드대 레이철 대인 대변인은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리더가 되려는 학생은 인종이나 국적, 경험, 시각이 각각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하버드대는 보다 다양한 신입생을 뽑기 위해 연간 150곳을 직접 찾아가 학생들과 학부모, 지도교사 등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32. 송헌영 목사(1887-1970)

송헌영은 1887년 2월 1일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다. 송실학교에서 가르치던 중 삼일만세사건에 연루되어 그는 군산 미션 스쿨로 옮겼고, 1921년 평양 송실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24년 6월 여름 광주에서 무산아동 교육을 후원할 때 그는 6개 단체 중 양림교회 대표로 참가했고, 다음 해 12월에는 그도 신기치를 세워 힘써 배우고 군선 단결로 삶의 권리와 자유를 찾는다는 취지로 제주여자청년회 창립될 때 그 모임에 참석했다. 1926년 광주 송일학교 학감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이듬해 5월 3일간 전북 전주군 삼례교회에 초빙되어 강연회를 인도하였고, 1928년 3월 기독교 청년 전남 연맹 창립에 동참했다. 송헌영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학교인 삼일학교 교사로 김세형과 함께 가르쳤고, 1932년에는 본 학교의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라성 남감리교회 주일학교 교사

송헌영은 1932년에 라성성경학원(오늘날의 바이올라 대학)에 김

라성장로교회 전도사

김중수牧사는 1936년 8월 라성장로교회를 사임한 지 한 달 후 본 교회 당회는 김성락 목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송헌영을 본 교회 임시 전도사로 선임하였다. 주일예배는 송헌영의 사회로 매 주 설교자가 달랐다. 첫 주일에는 메리 스트리트 여사, 둘째 주일에는 스미 박사, 셋째 주일에는 기안라 선교사, 그리고 넷째 주일에는 송헌영이 맡았다.

기안라(奇安羅) 선교사는 1912년 미국 남장로교 여성교사로 내한하여, 광주, 군산 그리고 순천 등의 호남지역에서 1935년까지 약 23년간 사역한 아내 루 그리어 여



송헌영 목사

것으로 보이나 메리 스트리트 여사와 스미 박사는 영어로 설교를 하고, 송헌영이 통역했을 것이다.

그는 김성락 목사가 부임하던 1937년 2월 16일까지 5개월간 라성한인장로교회를 섬겼다면 5년의 설교를 하였다고 보인다.

라성한인기독교교회

그런데 1936년 9월 장로교회 김중수 목사가 라성장로교회를 사면한 후 황유, 송장교, 안경호, 김순권, 전진, 현승걸, 김재신 등과 함께 따로 예배를 드릴 때 송헌영도 함께 했다. 이 예배는 그 후 라성한인기독교교회로 발전한다. 예배당이 1936년의 노스 올리브 스트리트에서 1941년에 맥클린타크 예비뉴로 이동할 때에도 양노원 사역은 계속 추진되었다. 송헌영이 1939년 4월 2일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김중수 목사의 목회를 돕는 자비량 부목사로 부임하였을 때 그 달 9일에 미국인 갈보리 교회에서 목사로 안수 받은 리장성은 본 교회 순행전도목사로 부임했다.

우리들리 한인장로교회

송헌영은 1939년 5월 23일 한석원 목사에 이어 중가주 리들리 한인장로교회 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1939년 4월에 미국 북장로교 샌호킨 노회에 가입하였고, 그 해 김호와 김형순이 기부한 제이 스트리트 1408번지의 부지에 예배당을 신축했다.

송헌영이 부임하던 그 해 6월 5일에 우리들리 국어학교를 개학하고 그가 교사가 된다. 그 달 18일 나성에서 송헌영은 13인 국어교과서 편찬원 중 한 사람으로 피선되었다. 역사, 지리, 풍속, 수산, 문법, 노래, 동화, 격언, 현인사적 및 체육 등의 주제로 된 총 16권의 교과서 중 그는 격언 부문과 또한 최봉윤과 함께 동화 부문까지 집필토록 예정했다.

송헌영의 첫 해의 목회는 웃음과 눈물이 교차했다. 1939년 6월 14일 밤 본 교회에서 탄유바교회의 이삼을 목사와 더불어 송헌영은 신요한과 김제시의 백년 가연을 맺는 결혼식의 사회를 담당했다. 그런데 그 해 10월 28일 오전 10시에는 본 교회당에서 고 진영규씨의 장례식이 있었다. 어려해년부터 장례비용으로 병원을 찾았던 그의 마지막을 '신한민보'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중가주는 가을이 쓸쓸하여 포도나무는 덩굴만 남았고 백악이 떨어져 낙엽이 날리는 가운데 수필 초옥은 김형제 상회 뒤뜰에 있는 진영규씨의 고택인데 자전기가

희극, 백락관의 장구, 안예선의 노래 그리고 최학선의 춤으로 이어져 밤이 늦어져야 산회했다.

우리들리 장로교회는 1940년 2월 20일에 세계 제2차 대전 중 큰 환난을 당한 핀란드에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의연금 13.5달러를 모집하여 당시 핀란드인 교회를 경유하여 핀란드로 전달했다. 본 의연금에는 김형제상회와 장 부인이 각각 5달러, 임 부인이 1달러, 백락관과 정흥봉과 김응규가 각각 50센트 그리고 송헌영의 1달러가 포함되었다.

송헌영은 1940년 6월 라성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에 본 교회는 환영회를 개최하고 이삼을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남녀 창가대의 환영가 있는 후 교회는 가족 손가방, 청년부는 기념품, 김형제상회는 자동차 타이한상을 기증했고, 송헌영은 감사의 말로 화답한 후 연회가 이어졌다. 그 해 8월 그는 가주 장로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라성을 재차 방문했다. 그 해 10월에 그는 미국으로 방문한 한국의 경남 성경학교 교장 김길창 목사와 함께 동부를 여행하였는데 이듬해 3월에는 성황리에 송헌영의 목사 위임식이 엄숙히 거행됐다.

송헌영의 나라사랑은 여러 활동과 직책에서 나타난다. 1939년의 인구세 납부, 1940년의 내지 한인 의연(1월), 다뉴바의 삼일절기념식 연설, 기부한 광복후원금, 리들리 지역 통신문 재직, 1941년의 리들리에서의 삼일절 기념식에서 독립선언서 낭독과 광복군 후원금,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임시위원 및 사무과 직원, 1944년의 대한인동교회 북미총회 부회장 선임, 동지회 남가주 지방회 주최 국치기념식 주석,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전체대표회에 동지회북미총회 대표로 참석, 1945년의 동지회 미주와이 정강제정위원, 동지회 후신인 대한민주당 규척기초위원 그리고 상향대표 교섭위원 등에서 그의 나라사랑이 역력하다.

대한인 동지회교회

송헌영은 1955년 대한인동지회 북미총회 건물에서 활동하던 대한인 동지회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이 해에 그는 유학은 한인 학생 환영회를 개최한다.

송헌영은 1972년에 향년 84세로 소천한다. 그는 송자희 여사와의 사이에 송영창 등 6남매를 두었는데 송영창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지회 북미총회장이 된다. 한국 정부는 2014년에서야 송헌영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고 그의 애국심을 재확인하여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damien,sohn@gmail.com

1930년 나성신학교 유학차 도미, 이승만 만나 독립운동 나라사랑 활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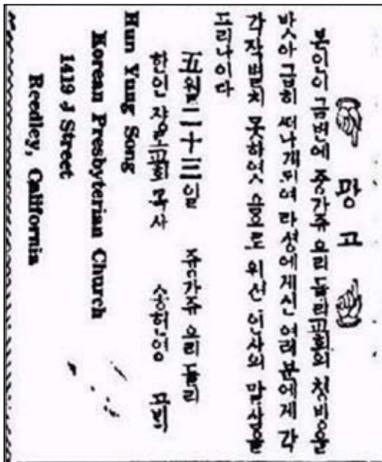
1955년 대한인 동지회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며 한인유학생 환영회 열려



우리들리 한인장로교회

1930년 나성신학교(클레아몽트 신학교 전신)에 유학차 나성에 도착했다. 이무렵 이승만을 만나 그의 독립운동 후원에 참여하면서 북미 시보의 기자로서 교포의 독립운동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해 11월 나성에서 만주사변에 대한 한인사회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나성공동회에 참석하였다. 1931년 그는 박경신이 교장으로 있던 라성국어

문과 함께 등록했다. 그 해 9월 그는 라성감리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다. 주일학교 교장에는 박경신이었고, 교사로는 리일영, 윤도연, 정해경, 최련실 등도 있었다. 그런데 '신한민보'는 그의 이름 다음에 물음표를 넣어두었으니 확실치 않다는 의미다. 1934년에는 그가 본 학교의 2학년이 되었다.



신한민보, 1939년 6월 1일

저 선교사다. 1932년에 워커와 결혼한 그녀는 1935년에 도미하여 나성에서 거주하였다. 기안라 선교사는 한국어로 설교가 가능했을



한인유학생 환영회, 1955년

이삼을 목사가 부임하기까지 본 교회를 섬겼다.

우리들리 교회는 1919년 2월 리들리 지역의 전성룡의 집에서 미국 남감리교 순행 전도사 임정구를 초빙해 예배를 드렸는데 1922년 3월 미국 남감리교 교회로 승격됐다. 1936년 한국 감리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정하자 본 교회는

다시 굴러 나오지 않고 기침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 재미한인 중 올더 타이머 진영규씨는 이로부터 영원히 갔다."

그 해 11월 23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탄유바와 우리들리 연합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탄유바 예배당에서 송헌영 목사가 설교한 후 탄유바 청년들의 합창과 고세라의 피아노 독주가 있었고, 예배에 이어 여흥은 정흥성과 백락관 그리고 김진목이 편성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수여됩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 유석경 저/구장
- 광야의 소리, 율종하 - 성서유니온
-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 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 -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성경도 신앙 (37)

청교도의 가정생활



이윤석 목사
(NY 브루클린 제일교회)

3. 청교도 가정 구성의 위치와 역할

청교도들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의 가르침대로 먼저 가정에서 분명한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었다. 노인은 젊은이보다 우대하였고, 교육을 받은 사람을 무식한 사람보다,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기술자를 보통의 노동자보다 더 존경하였다. 무엇보다 가정의 질서는 엄격하여 남편은 가정에서 왕이요 교사이며 목사로 재판관과 같이 행하였고 모든 식구들은 그에게 합당한 예의를 표시하였다. 후기 현대주의는 이런 모습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다. 우리가 기독교적 아버지상을 다시 회복할 내용에 대해 사려 깊게 생각할 수 있

교도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늘 돌보며 사랑하였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였으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연약한 점들을 덮어줌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 영적이고 육체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다. 또한 아내의 권위나 충고에 귀를 기울임으로 정중하게 아내에 대한 예의를 가졌다. 무엇보다 그들이 모습 속에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가정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부부생활 속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우리는 청교도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분주함에 얽매어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회복되어야 할 남편과 아내의 관

제사장적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남편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대표자의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2)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서의 청교도

청교도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힘썼다. 아내는 남편의 지배 아래 생활하며 남편 앞에서 집안일을 돌보고 자녀들을 보살필 책임을 지는다. 그러나 남편의 권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고 사랑으로 아내를 돌보아야 했다. 청교도 남편은 아내에게 명령만

석한, 성경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오만의 행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
청교도 신앙이 만개한 뉴잉글랜드의 여성사인 앤 브레스트리트(Ann Braidstreet)는 남편에게 시를 바치며, “나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불같은 학질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남편이 영국으로 가는 길목에”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없는 이 외로운 시간에”라는 부제를 붙여 남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였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개인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예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혐오하였다. 부부의 사랑과 성적 표현은 공공장소가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으로 한정되었다. 이로서 청교도들은 부부생활에서 예의와 절제를 중요시함으로써 신대륙의 건전한 기독교 성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다) 청교도 사회에서 여성의 활동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플리머스(Plymouth)에 정착한 분리주의적 청교도인 필그림들(Pilgrims)은 여성에게 피선거권을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마음을 넘는 용기

벌써 한 여름의 종막이다. 시간이 빠르다. 사람이 가장 짧게 사는 길은 자기 뇌를 속이면 된다는데, 젊다는 것은 어쩌면 나이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조금만 조율을 잊은 채 살면 몸으로 가슴으로 침체된 영혼을 퍼 올려라는 신호가 온다. 변화 하라는 것이다.

탁월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 탁월함이란 어쨌든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다는 것이 아닐까.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나은 생각을 한다는 것일 게다.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더 활력이 있어 보이고, 지난달보다는 더 옳은 말을 하고 지난해보다는 올해에 더 그득해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라. 나이가 들어감에도 말이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닐까.

그냥 익숙한 삶 속에서 오늘도 어제처럼 살고 지난주처럼 생각하고 지난해처럼 행동한다면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렇다. 용기란 마음을 넘는 것이다. 자신 안에 두려워하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고 그 감정들을 정직하게 만나는 것이라. 모르는 일을 해보고 낯선 사람을 만나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익숙함을 과감히 떨쳐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 익숙한 곳에서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이 늘 지배했는데 낯선 곳에서는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이라. 그래서 새로운 좋은 생각들을 배우고 그걸 그냥 따라 살아보면 새롭게 알아지는 기쁨이 있으리라. 그것들을 그렇게 하나씩 알아차리고 사는 삶이 산 제사로서의 삶이 아닐까. 제대로 사는 삶이라.

그렇다.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과 허세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화가 나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지... 원망이 일어나고 우울 속에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리는지... 자신의 생명력을 다 소진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 한번뿐인 내 인생인데... 어쩌면 사실 지금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감사이고 건강이 아니라 사랑이고 성공이 아니라 감동이라.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동하는 삶이 필경은 예수를 만난 삶이 아닐까.

우리는 성경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그저 습관적으로 믿어오던 신앙생활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간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의 약속들을 그대로 믿고 살면 오히려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신명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학문을,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또 복잡하고 심오한 이론을 가르치지 않으신다. 단지 주님은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살면서 ‘지혜’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하며 또 있어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이리라. 그것들이 먼저처럼 쉽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돌을 하나씩 쌓아가듯 신중하고 집중해서 쌓고, 보고 싶지 않아 외면하고 꺾꺾 눌러놓았던 것들도 과감히 보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삶의 무게도, 혼란한 일들도 겸손이 몸에 밴 사람처럼 ‘예’로 맞이하며 살자.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믿음으로 고정시킨 일상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맞춰지면 과감히 십자가를 관통하여 영원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인생을 살게 되리라.

우리는 장황하게 자신을 소개하지 말고 그저 몇 개의 단어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삶을 표현하자. 굳이 너무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준비한 대로 또 내가 믿는 대로 용기를 다해 느낌의 깊은 바다에서 숨 쉬는 영혼과 접촉할 때, 내 가슴은 살아서 그야말로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changsam01020@gmail.com

제5계명대로 먼저 가정에서 질서 확립, 하나님의 머리되심 원리 상기 여성인권 무시되던 시대에 제한적이나 여성권위 신장, 부부역할 구분

는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 남편으로서의 청교도

하나님께서서는 권위와 책임에 대해 분명하게 명령하셨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전11:3)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머리되심의 원리를 가정에 명령하셨음을 상기시켰다. 청교도 남편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생활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가정을 지도하며 보살필 책임을 지고 있었다. 청교도들은 아내에 대해 차별을 두는 남성 위주의 편견된 남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누구보다 존중하였고 가정을 운영하는 동반자로 간주하였다. 그들에 있어 좋은 남편이란 아내의 친구가 되어 주는 자로, 자상하고 평안하게 아내를 이끌고, 두려움보다는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였다.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란 아내가 남편의 지도를 따르게 하되 노예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유와 특권으로 느끼도록 이끄는 자였다. 청

교가 다시 재조명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주지사로서 수년간 봉직했던 존 윈트로프(John Winthrop)는 아내 마가렛(Margaret)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늘 이렇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고백했다. 그는 편지 말미에 “많은 사랑의 입맞춤을 당신에게 보내며” “안녕, 당신을 향한 내 부드러운 사랑으로 달콤하게 입 맞추고 순결한 포옹을 보내며” “소중한 아내에게 입맞춤을 보내며” “언제나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려하오” “가장 부드러운 사랑으로 당신에게 입맞추며 사랑하오” “평안을 빌며, 당신에게 입맞추오” 라고 써서 로맨틱한 사랑을 표현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사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도전이 되는 로맨스라고 할 수 있겠다.

청교도 남편은 한 가정의 법적인 대표로 자녀나 도제들을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 또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주일이나 목요일 강좌에서 행해진 설교를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적용하며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요리 문답을 교육하여 가족들을 신앙 위에 세워야 할 사명이 있었다. 청교도의 남편들은 성경을 따라 뜨겁게 사랑하며, 가정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내의 진정한 조력자이어야 했다.

(가) 아내의 존재

리처드 백스터는 ‘예배 규칙서, A Christian Directory’에서 아내를 “신실한 친구”,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대상”, “영혼에 힘을 주는 조력자”라고 언급하였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다니엘 로저스(Daniel Rogers)는 ‘결혼의 영예, Matrimonia Honour’라는 글에서 아내를 “진정한 친구”, “하나님과 더불어 향배하는 일 다음으로 해 아래서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장본인”이라고 표현하였다. 로버트 클리버(Robert Cleaver)는 ‘가정 제도의 경건한 형태, A Godly Form of Household Government’에서 “하나님께서서는 아내를 무용지물, 필요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달리 돕는 배필이라고 칭하셨다”고 하면서 “아내를 명예를 같이 맨 동역자요 친구로 간주하고 아내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고 주장함으로 여성의 위치를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립하였다.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성경적인 아내의 존재상을 망각하여 인위적으로 왜곡되게 해

주는 것을 금하였고, 뉴잉글랜드 전역에서는 여성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 아내의 모든 재산은 남편의 이름으로 등재되어야 했으므로 아내의 재산은 결혼과 함께 남편의 소유가 되었다. 남편이 사망할 때 아내의 결혼 기간 중에 소유하였던 땅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었고 재혼할 경우에도 재산권이 유효했으므로, 재혼할 때 여자의 재산 여부를 따지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잉글랜드에서 여성의 권위는 어떤 사회보다 크게 신장되어 있었다. 여성들도 교회 회원권을 가질 수 있었고 교회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가견적인 성도’(visible saints) 가운데 다수가 여성이었다. 청교도들은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대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권위를 신장시켰고 부부의 역할을 구분하여 상부상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며 그런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younsuklee@hotmail.com

2017년 가을학기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 (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 admissions@buc.edu

TEL: 1-714-517-1945 / FAX: 1-714-683-1440 ▶ www.buc.edu

모집학과

- 신학**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 음악**
 - 학부(B.A.)/대학원(M.A.)
 - 건반악/관현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 영화음악
- 경영학**
 - 학부(B.A.)/대학원(M.B.A.)
 -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 유아교육**
 - 학부(B.A.)/자격증프로그램
 -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ESL**
 - ESL I-20/ Certificate
 -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 온라인**
 - 학부(B.A.)/대학원(M.A./M.Div.)
 -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스포츠팀**
 -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혜택



목장일기

아무리 동서양이 반대라지만...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동양인이 서양에 살다보니 반대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느끼며 산다. 동서양은 위치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다. 시차도 반대로, 동양은 일출을, 서양은 일몰을 중시한다. 사람 얼굴 모양도 주로 납적함과 가쁜한 게 반대로, 동양인은 상반신이 길고, 서양인들은 하반신이 길고, 머리카락 색깔도 검정과 다양함으로 다르다. 인간관계도 수직적 나이의 높낮이를 확인하기가

지는 대화가 잘 안 풀리지만 수평적인 사고의 서양인들은 누구를 만나도 프렌드로... 하이로 잘 통한다. 감정도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도 반대이지만 장례식에서는 동양은 통곡해야 호상이고 서양은 속으로 슬퍼해야 한다. 이름과 주소 표기와 여순도 반대다. 한국은 김 박사님! 미국은 닥터 김! 심지어는 전화번호도 119가 911으로... 114는 411로 뒤집어져 있다. 동양은

신사 숙녀 여러분!... 서양은 레디스 앤 젠틀맨 순으로 부른다. 음식 문화도 반대가 많다. 우선 주식인 쌀과 밀로, 같은 쌀이라도 찰진 것과 불지 않는 쌀이 반대다. 동양 식탁은 한꺼번에 상차림을, 서양은 코스별로 먹는 것이 통례이다. 수저와 포크, 나이프도 다르고, 동양은 저쪽에서 내 쪽으로, 서양에서는 내 쪽에서 저쪽으로 수프 짬질을 한다. 식탁에

서 식이불언이고... 서너 시간 얘기하면서 먹는 것도 반대이다. 심지어는 한국 밥상에서 코푸는 것과 트림은 자유지만 미국에서는 코푸는 것은 자유지만 트림하면 아주 질색적인 실례가 된다. 바다랭귀지 면에서도 환연하게 다르다. 오라는 것과 가라는 손가락 표시가 반대인 것을 알지만 손가락으로 숫자 세는 것도 반대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은 손을 펴고 엄지를 접으면서... 미국에서는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부터 펴면서 하나 둘 셋을 센다. 돈세는 것도 반대이다. 동양은 마치 내 돈! 내 돈! 하면서 바깥에서 내 쪽으로... 서양에서는 내 돈! 내 돈! 하듯이... 내 쪽에서 상대편 쪽으로 센다. 톱질도 당기면서 썰지만 여기서는 밀면서 썰다. 연필을 깎을 때나, 빗자루질을 할 때에도 바깥에서 내 쪽으로 모으면서 공해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살아서도 반대이지만 장례도 사후세계도 반대다. 동양은 입관해서 비공개를, 서양에서는 시신을 공개하고, 동양은 예곡

을, 서양은 많이 웃기는 분위기를 선호한다. 어디 그 뿐인가? 시신의 장지도 동양에서는 가급적 멀리... 서양은 교회당 뜰에다가 묻는다. 귀신의 세계도 반대인 것을 아시는 가? 한국 귀신들은 모조리 소복차림의 산발한 처녀귀신인데 여기는 모두 가 정장차림에 올백차림의 남자 귀신들이다. 수백 수천가지가 반대이고 생전 사후가 반대라도 이 한 가지는 공통이다.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 없는 복음은 똑 같다. 이민 목회자는 동서양의 중간 쯤에 설 수 없다. 오직 동서양을 초월하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섬겨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유대(동양)인이나 헬라(서양)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

jkim47@gmail.com



그레이스미션대학 LA Extension Class 교회 커뮤니케이션 무료 공개강좌에서 제임스 구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교회/선교단체 행정실무 공개강좌

그레이스미션대학 LA Extension Class

그레이스미션 대학(총장 최규남 박사)이 #170) 확장과 함께 교회 및 선교단체, 비영리 법인의 행정실무가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하는 행정 실무 강의로 무료 공개강좌를 3일 LA 사이트에서 가졌다. 이번 무료 공개 강의는 제임스 구 교수가 강사로 나서 소셜네트워크의 개념, 인터넷 관련기술, IT 기술을 활용한 목회사역 방안, 교회 사역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전략, 메일계정 관리를 통한 처치 커뮤니케이션, 메일링 마케팅 서비스 활용 등을 강의했다. 제임스 구 교수는 "교회에서 컴퓨터를 이 단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엔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 삶의 요소가 돼버렸으며 교회사역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며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역을 펼쳤으면 한다. 카카오톡이 PC버전도 나와 있어 타이핑이 가능해졌다. 이를 이용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그리고 10-15명 단위로 소그룹활동을 하게 하면 교회사역은 보다 풍성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두 번째 강의는 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서비스 이용하세요"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부부갈등이나 인간관계, 분노조절, 스트레스 관리, 가정폭력 등으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LA카운티 정신건강국과 아동보호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자격 조건을 갖춘 한인은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무료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의 도움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한인가정상담소는 LA카운티 정신건강국과 아동보호국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인들에게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컬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PEI(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를 통해 6개월에서 1년간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ISM 또는 ICP는 LA와 인근지

부부갈등, 인간관계, 분노조절, 가정폭력, 스트레스관리, 우울증 등 심리상담, 가정폭력 예방부서에서 도움...일부 프로그램 무료 지원

다. 카니정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1983년 한인 이민 여성과 어린이를 돕자는 목표로 만들어진 비영리단체로 지난 34년간 LA 인근 지역 한인들에게 심리상담과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 등을 한국어로 해오고 있다"면서 "정신건강이나 가정폭력, 약물이나 알코올, 트라우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인가정상담소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리상담부서 안현미 매니저는 "개인은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해 걱정이 많아지거나 악몽을 꾸고 과거 트라우마가 떠오른다면,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면 전문가

역에 거주하는 21세 한인 중 메디컬이 있거나 혹은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 신체적으로 아픔을 느끼거나 술이나 마약 등의 약물에 중독돼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아동보호국이 지원하는 아동학대에 방치료 프로그램(Child Abuse Prevention, Intervention and Treatment -CAPIT)은 LA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은 24시간 핫라인(888-979-3800)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213)389-6700, www.kfamla.org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2면에서 계속) 이런 상황에 놓이면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하여 꿈꾸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 계속해서 안주할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은 잠시 계속되다가 언젠간 멈출 것이다. 10년 동안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변화를 모색한 회사가 있는가? 오랜 시간 금슬 좋게 지내다가 갑자기 관계가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부부가 있는 지 찾아보라. 노력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맡겨 둔다면,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결국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성공과 거리가 먼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미래의 성공을 막는 가장 큰 적은 현재의 성공이다. 계속해서 여러 상황과 맞서고 이를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상황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말이다.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큰 꿈을 하나님 앞에서 꾸어야 한

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 맞서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모든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 최소 어느 정도까지는 맞서 싸워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절대로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진전을 위해서 현재를 박차고 나아가, 하나님과 진리를 열심히 따르면 더 나은 내일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믿어야 한다. 그러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설명

해야 할까? 바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은 무엇이고 좋아할 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더 좋은 지도자가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지금 놓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한인가정상담소는 부부갈등이나 인간관계, 분노조절, 스트레스 관리, 가정폭력 등으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저자_라홍채 목사

• 출판출판사 : 02)745-1007
 • 한국 : 하나님의 구원계획센터 김중문 목사 : 010-3073-7974
 • LA : 기독교서적센터 : 1-323-737-7699
 • NY : 하나님의 구원계획센터 라홍채 목사 : 1-917-588-2934, 1-917-968-1024

• 콤란출판사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영 어 : _____ 평 신 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목사회 장학생 모집

제 45회기 뉴욕한인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는 2017년도 가을학기를 앞두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눅10:36)라는 주제로 성경에서 보여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좋은 모범을 상기하며, 굿 사마리탄(Good Samaritan) 찬양대축제를 통해 한부모 자녀 및 목회자 자녀 돕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문의: (718)762-5756, 445-2291, 926-5599

퀸즈장로교회 제 2회 어린이/청소년 서머 뮤직캠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제 2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서머 뮤직캠프를 갖는다. 일시는 8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이며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및 보컬 레슨 등의 전문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 (718)886-4040

뉴욕만나교회 2017년 여름성경학교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 2017년 여름성경학교가 8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문의: (917)860-0629 차진희 전도사

도르가의집 필라 상담교실 2단계 개강안내

도르가의집 필라 상담교실 2단계 강의가 9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주간에 걸쳐 필라델피아교회(담임 이경중 목사)에서 매주 목요일 열린다. 강사는 배인순 목사, 김부경 전도사(상담전문가)로 등록비 50달러와 2단계 수강료 100달러를 내면 된다.

문의: (267)575-9977

씨존 스마트폰 초중급반 강의

씨존(C-Zone, 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초중급반 강의(70기)가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100분) 강의된다. 강의 내용은 다양한 카톡 중급 기능 활용법, 인터넷, 주소, 앱 다운로드받기, 신문/TV/유튜브/방송 듣기, 성경 보기, 와이파이 연결법 등 다양한 기능 등을 배운다.

문의: (718)414-4848

실버미션스쿨 2017년 가을학기 개강

실버미션스쿨 2017년 가을학기 28기 강의를 8월 21일(월)부터 10월 30일까지 11주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식사 후 8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진다. 뉴저지 실버미션선교회(대표 양준길 목사) 부속 실버선교사훈련원(원장 김용철 목사)가 주관한다.

문의: (917)363-7979 김용철 목사, (732)778-1538 이문홍 장로



패밀리터치 제 15회 리더십 캠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제1회 목회자 친선탁구대회 시착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스포츠로 친교... 불우이웃도 도와

뉴욕 뉴저지 제1회 목회자친선탁구대회

뉴욕과 뉴저지 목사탁구동우회가 주최하고 임마누엘스프츠선교회가 주관한 불우이웃돕기 제 1회 목회자친선탁구대회가 지난 7일 뉴욕탁구장에서 열렸다.

오전 10시30분 김희복 목사 사회로 먼저 예배를 드렸다. 기도는 박맹준 목사, 설교는 김상태 목사(뉴욕목사회장)가 "신앙인의 스포츠정신"(히12:1-2)이라는 제목으로 말

음을 전했다. 축도는 최예식 목사, 2부 축하예식으로 뉴욕탁구동우회장 이만호 목사가 인사말을 한 후 뉴욕목사탁구동우회 고문 안창의 목사와 재미대한탁구협회 양창원 명예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어서 김홍석 뉴욕교협회장, 김

중국 뉴저지교협회장, 박근재 뉴저지목사회장, 문석호 뉴욕목사회 부회장이 축사한 후 경기에 들어갔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진행담당 및 설명은 전태호 목사(임마누엘스프츠선교회 대표 및 탁구동우회 코치)가 담당했다.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체전: 1등 뉴욕A, 2등 뉴저지, 3등 뉴욕B ▲개인전: △A조-1등 박맹준, 2등 이만호, 3등 김희복, 4등 김준남 △B조-1등 김중국, 2등 김중훈, 3등 신상필, 4등 강주석.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임마누엘스프츠선교회와 뉴욕나눔의집, 주님의식탁선교회, 오른손구제센터, 사랑의집, 달리다군선교회 등 6개 단체에 전달됐다.

뉴욕목사회와 뉴저지목사회가 후원했고 뉴욕교협회와 뉴저지교협회, 뉴욕탁구장이 특별 후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천지창조 박물관" 견학

9월 11-13일, 선착순 50명, 일인당 20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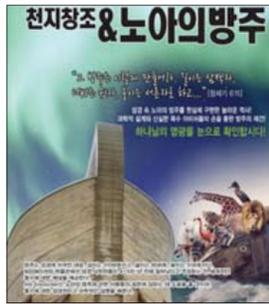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센터가 주에 있는 "천지창조 박물관(노아의 방주)" 견학을 계획하고 있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이번 43회 교협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유력 종교개혁자 순례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 목사들을 우선으로 이번 천지창조 박물관 견학을 준비했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과 힐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시는 9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2박3일이며 선착순 50명(교협 회원교회 목사, 사모, 평신도). 비용은 일인당 200달러. 총 400달러 중 교협이 50%를 지원한다.

출발은 11일(월) 오전 6시30분 노던블러바드 156가 H마트 주차장. 대형 코치버스를 이용한다.

일정은 첫날 헤리스버그에서 중식을 한 후 피츠버그 도착, 시내 관광과 포인트주립공원 트레킹 관광을 한 후 저녁식사를 하고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다.



둘째 날은 센터가주로 이동해 노아의 방주 테마 파크 투어와 창조 박물관을 관람한 후 저녁식사 후 호텔로 이동한다.

마지막 날은 아침식사 후 헤리스버그로 이동해 펜실베이니아 주청사를 방문하고 점심식사 후 허쉬 초콜릿 월드를 관람한 후 저녁 6시 뉴욕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돼있다.

문의 및 접수는 교협사무실 (718-279-1414)과 장현숙 목사 (718-406-5997)에게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미주 최대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 C'

9월 2일 퀸즈장로교회... 등록마감 8월 19일

미주 최대의 CCM 오디션인 '가스펠스타 C'가 9월 2일(토)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린다.

단비기독교TV(사장 정상교)와 퀸즈장로교회와 공동 주관해 열리는 '가스펠스타 C' 미주대회는 재능 있는 CCM 가수 발굴과 함께 크리스천 공연문화의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미주에서 마련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천 달러와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대회 '가스펠스타 C 시즌7' 본선 출전권과 부상으로 한국 양복 항공권 1매가 주어진다. 미주대회 금상은 1000달러, 은상은 500달러.

최저 측은 많은 참가를 이끌기 위해 참가비가 없으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접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주대회 자문위원을 맡은 김성국 목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찬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특히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



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미주대회 참가 등록마감은 8월 19일까지. '가스펠스타 C' 홈페이지(http://gstarc.cchannel.com)를 통해 녹음한 음원을 등록하거나 유튜브에 등록된 영상 주소를 링크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기성가수로 등록하지 않은 찬양을 사모하는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타민족도 출전 가능하다.

참가 부문은 솔로, 중창(듀엣, 트리오 등), 밴드(8명 이하)로 나뉜다. 참가곡은 기성곡이거나 창작곡이거나 관계없다.

미주대회 심사위원은 한국의 인기 가수 이승철의 '마더'를 공동 작사 작곡한 김유신씨를 비롯해 '가서 제자 삼으라'를 부른 CCM 가수 최명자 사모, 한국 MBC '위대한 탄생' 뉴유저지 심사를 맡았던 하영석씨, 그리고 퀸즈장로교회 음악감독 윤원상 전도사(심사위원장) 등 4명이 맡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단비기독교TV 홈페이지(www.danbitv.com), 전화 (718-224-8533), 이메일(danbitv9@gmail.com)로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

패밀리터치 주관 제 15회 리더십 캠프

가정사역기관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관하는 제15회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을 배우는 리더십 캠프가 지난달 27일부터 2박3일 동안 HNA 팰리세이드 프리미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8학년부터 대학생까지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을 아너로 졸업하고 인디펜던트

트 아트 애티비스트로서, 현직 프로 그래머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는 강사들과 커뮤니케이션 및 동기부여 전문 강사, 목회자 등, 다양한 강사진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7가지 습관들을 익히도록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했다. 대학생 자원 봉사자로 여러 해째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John Kim(20)은 대표로 소감문을 발표하고 캠프 참가자들과 일곱 가지 습관을 직접 배우고 연습한 경험을 나누며 봉사하기도 했다.

특별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이 주를 이루어 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대학진학 이후에도 자기관리와 목표성취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패밀리터치 리더십 캠프는 매년 여름 개최된다. ▲연락처: (201)242-4422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Worldwide Church Directory: 동부(NY, NJ)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북클린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네트럴교회, 뉴욕복음인도교회, 뉴욕초대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주비전교회, 퀸즈장로교회, 퀸즈한인교회,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목회자 교회, 법 준수 우선” LA기윤실 제1회 건강교회교실, 강사 박문규 대표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박문규 학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1회 건강교회교실 두 번째 강기가 5일 오전 10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313호 강의실에서 열렸다.



LA기윤실이 주최한 제1회 건강교회교실 두번째 강의에서 박문규 LA기윤실 대표가 강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9일 첫 강의에 이어 열린 두 번째 강의는 박문규 대표가 강사로 나서 “한국 교회의 정책 결정과정과 교회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 대표는 “2017년 한국 겉잡지사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75%가 교회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조사됐다”며 “개신교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목회자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며 둘째, 교회운영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목회자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너무나 큰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 교회 개혁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회운영에 있어서 담임목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있다. 이러한 구조가 변해야 하며 적어도 담임목사가 세상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인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민법, 세법, 건축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한다”며, “이민법은 불체자를 구제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영주권 스폰서가 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 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스폰서를 서는 것이다. 사례비 조작 등 편법으로 스폰서를 서게 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교회분쟁 시 부메랑이 되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준수 역시 중요하다. 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려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 역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으며 “간판을 소유하는 교회의 경우 소방법부터 크고 작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보육원인 신애원 돕기 펀드레이징 콘서트에서 출연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국 신애원 돕기 펀드레이징 콘서트 내년 2월 연합 콘서트 계획

한국의 보육원인 신애원을 돕는 후원음악회가 2일 오후 4시 With Music and HWOXFAM(대표 조수아리) 주최로 LA Conservatory of Music(LACM, 원장 정사라)에서 열렸다.

LACM 원장인 소프라노 정사라씨는 “한국의 보육원인 신애원은 단순한 고아원이 아닌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훈훈하고 밝게 자라게 하는 곳이다.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펀드레이징 콘서트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콘서트는 브랜던바, 메간 김, 라이언김 줄리장 등 LACM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곡들을 연주했다. 그리고 신애원에서 온 학생들인 임성민, 성자유, 서정민 등이 플룻, 바이올린, 첼로 3중주로 ‘You Raise Me Up’과 ‘아리랑’을

연주했다. 박 대표는 “교회의 모든 결정사항을 담임목사 혼자 결정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안전에 대해서도 교회가 정해 놓은 법에 의거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정해놓은 법은 문서화해야 하며 회의를 할 때 편익 상 모든 자료를 스크린에 띄워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 회의참석자들에게 인쇄된 내용으로 보게 해야 한다. 스크린으로 대체하는 회의는 회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교회법이 준수될 때 교회는 건강해진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라” 선한목자장로교회 문일명 목사 위임예배

선한목자장로교회가 지난 6일 오후 4시 문일명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문일명목사 위임식에서 위임서약을 하고 있는 문목사 모습

원영호 목사(새장로교회 담임)의 인도로 드린 예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딤후2:15)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 또한 주님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으로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며 “선한목자장로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임식을 통해 문일명 목사의 위임서약과 본 교회 교인들의 서약이 있는 후 노회장(RE Fried Wilson)이 위임기도와 위임선언을

한 뒤 노회 총무(Rev Wendy Tajima)가 위임패를 증정했다.

이날 축사는 천방욱 목사, 흥명의 목사가 맡았으며 김인식 목사가 권면의 말을 전했다.

문일명 목사는 나성영락교회 부목사, 글렌데일인장로교회, 한우리장로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KPC(남가주/와이이지역)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이성자 기자)

부고 본사 박준호 기자 부친상

본사 박준호 기자 부친인 고 박재복 장로(상도장로교회)가 한국 시간으로 8월5일(토) 오후10시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소천했다. 향년 80세. 고인은 1937년 9월 20일 함경도 원산에서 출생했으며, 14후퇴때 남한으로 피난하여 경남 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재직했다. 고인의 유가족으로는 부인 김서혜 권사, 장남 박신호 집사, 차남 박준호 기자가 있다. 장례일정은 7일(한국시간) 오후 3시 입관예배, 8일 오전 7시 발인예배 9시 서초구 원미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 후 안동교회묘지에 안장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지휘자 청빙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지휘자를 청빙한다. 신실한 신앙심과 지휘자 직책에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진 분, 이력서, 지휘에 관한 신앙관, 담임목사 추천서나 기타 추천서를 8월 31일까지 보내면 된다. 주소는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문의: (714)893-1652

반주자 청빙

나성세계로교회(담임 임지석 목사)에서 나이 불분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피아노 반주자를 찾고 있다. ▲문의: (213)219-9229

남침례신학대학/대학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남침례신학대학/대학원(학장 박성근 박사)에서 가을 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등록마감일은 8월 25일(금)이며 개강은 28일(월). 풀타임 신입생을 위한 장학금도 준비된다. ▲문의: (213)384-3552

KTEE 세미나

“효율적인 교회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 아래 오는 14일(월), 15일(화)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까지 양일간 풀러턴 지역 KTEE 미주본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한순진 목사를 비롯해 KETT 전문목사들이 강사로 선다. 등록비 100달러. 강의안과 점심이 제공된다. ▲문의: (714)350-4211

WMU 상담교실

WMU(웨일스신학대학교)는 2017년 가을학기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인의 인격성장과 관계회복’이란 주제로 상담교실이 열린다. 성경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 하나님 형상회복과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기초 상담 워크숍이다. 기간은 8월 29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12주간 동안 진행된다. 강사 김현경 교수. 평신도 리더나 사역자 모두 참가할 수 있다. ▲문의: (213)388-1000

웨슬리언 연합찬양제

미주웨슬리언연합회(회장 황기호 목사)가 주최하고 크리스천윌리(발행인 조명환 목사)가 주관하는 제 11회 웨슬리언 연합찬양제가 10월 15일(주) 오후 6시 워싱턴합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찬양제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나사렛교회 등 웨슬리언 교단 소속 개교회와 찬양대가 참여한다. ▲문의: (213)383-2345(크리스천 윌리)

제13기 목회자 아버지 학교 개설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주최하는 LA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오는 8월 21일(월) 오후 5시부터 9시, 22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27일(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사랑의빛신학교(담임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신청비는 120달러. ▲문의: (213)700-4689, 382-5454



본사 박준호 기자 부친 고 박재복 장로의 장례 모습.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상담: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11:30(토)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상담: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01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일몰목회(월-금): 오전 5:30 목회상담: 오후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6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주둔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cr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집 안 예배: 오후 1:20 영아관(왕소:KDC, 침례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성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t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부” 목회상담: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황 목사), Tel: (213)210-6890 1213 Gabriel Marquez St., #8 L.A., CA 90033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주일학교: 오전 9:00(토) 수요예배: 오후 7:30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2:00(다목적)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수요예배: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6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2: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임의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Torranc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 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St., L.A., CA 90006	얼마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예배: 오전 6:00(토) 수요예배: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5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목적)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2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45(월-금)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목회상담: 오후 2:45(월-토)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00 주일 학교: 오전 7:30 새벽 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j.org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45 목회상담: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주일예배: 오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68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ch.com / e-mail: pastor@aco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크엔스웨인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어)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h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3명 후보 등록

엄기호 목사, 서대천 목사, 김풍일 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4일 마감한 대표회장 선거 후보 등록에 총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번 선거에는 엄기호(광주 성령교회) 서대천(서울 홀리씨즈교회) 목사, 이영훈 전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자칭 '보혜사' 김풍일씨가 출사표를 던졌다.

한기총 관계자는 “후보 3인이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 교단 추천서, 이력서, 소견서, 운영기금 1억원 및 발전기금 5000만원 납입증명서 등

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정식 후보로 인정받으면 공개청문회에 참석하며 선거용 홍보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한기총 선관위는 9일까지 서류심사를 마친 뒤 11일 최종 입후보자에게 총회소집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선관위 논의를 거쳐 14일 전후로 공개청문회를 한 차례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인 명부

는 16일 확정된다.

선거는 24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임시 총회에서 1인당 5분간의 후보자 소견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320여명의 총대 중 과반수 표를 얻어야 대표회장에 당선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득표자 2인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해 두 사람 중 다득표자가 최종 당선된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유권자 축소' 변수

법원, 임원 23명 직무정지 결정

이달 하순 예정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변수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성서총회(총회장 김노아)가 제기한 '한기총 임원회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재임 당시 임명한 임원 중 23명을 대상으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이 대표회장이 법원

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기총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오는 24일 치러지는 한기총 대표회장의 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투표권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예장 성서총회가 지난 3월 3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에서 당시 대표회장이던 이 목사가 임명한

임원과 감사,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 사건의 결정 취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예상성서총회가 신청한 임원 68명 중 23명의 자격 역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기총 사무처에 따르면 임원 자격이 무효가 된 이들 23명 가운데 20명 안팎이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유권자가 320여명임을 감안할 때 6~7% 정도가 투표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표심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비밀투표로 치러지는 선

거에서 정확한 표심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속단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순복음 관계자는 3일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잃게 된 건 안타깝지만 나머지 표심이 어느 후보를 향할지는 알 수 없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가 정지된 이들 가운데 소속 교단에서 반드시 총대로 파송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총대 교체 절차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한기총 측 해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어느 총대가 누구를 지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적 경제적 법적 문제들이 많은데 이것을 간과한 채 헌법개약을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청년들은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개헌안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신학대 안에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정규과목 개설도 요구했다.

최은향(29·한동대 4년)씨는 “서구사회에서 밀려오는 동성혼 합법화의 흐름 앞에서 올바른 성윤리를 알리기 위해선 대학청년 연대를 결성하고 언론 정치 교육계 등에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성(35·백석대 신대원 2년)씨도 “신학대와 신대원에서 동성애와 동성혼, 퀴어신학의 폐해를 알리는

정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은 ‘동성혼 허용 개헌 반대 대학청년연대’를 조직하고 8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헌법개정 때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성애 독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서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차단당하기 전에 청년들이 앞장서 헌법개정의 심각성과 독재성을 대학사회에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예장통합, 총회장 2년 전임제 검토

“총회 업무 전념 필요” vs “장로교 전통 어긋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가 ‘총회장 2년 전임제’를 연구 중이다. 총회장 2년 전임제란 총회에 취임한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한 뒤 2년 동안 총회에서 상근하며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총회는 이때 사택과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예장통합은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다음달 18일 개최되는 102회 정기총회 때 보고할 예정이다.

총회장 2년 전임제는 지난해 정기총회에 앞서 전국 13개 노회가 상정했던 헌의안으로 당시 총회에서는 산하 정치부와 정책기획기구 개혁위원회(기구개혁위)로 안건을 이첩해 1년 동안 연구토록 결정했다. 하지만 연구를 담당할 두 기관이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는 데다 예장통합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우선 정치부는 총회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부장 이정원 목사는 “총회장이 목회와 총회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총회에 능수가 크다”며 “이외에도 교회 연합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전임 총회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재 예장통합 총회장 임기는 1년이다. 통상 9월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에 취임한 뒤 1년간 일한다.

하지만 3~4개월이 지나면 레임덕이 시작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년 전임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부의 관측이다.

반면 기구개혁위는 이 같은 의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전국 5개 지역에서 공청회까지 열었던 기구개혁위는 “2년 전임제가 장로교 전통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원장 김태영 목사는 “총회장은 영어로 ‘moderator’이다. 이는 회의의 사회자이지 정책 결정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회장 2년 전임제가 감리회의 감독제를 따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기구개혁위는 이밖에도 사택과 전임제 총회장 예우 등 예산 문제로 고려해야 하며 교회 사임을 전제로 전임제 총회장에 도전해야 하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개 지역 공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2년 전임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부와 기구개혁위 주변에서는 2년제 대신 수평적인 ‘총회장 1년 전임제’를 총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막판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허용 헌법 개정 반대”

43개 대학생들 국회의원회관서 포럼·기자회견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한동대 등 4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생 모임에 소속된 청년들은 ‘성평등·평등’ 등 1남1녀의 결혼 정의를 넘어서는 표현을 헌법에 담거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에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

였다.

홍은샘(20·경희대 1년)씨는 “헌법 헌법은 1남1녀의 결합을 뜻하는 ‘양성(sex)’을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으로 못 박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성’을 사회적 ‘성(gender)’으로 바꿔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에 등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젊은이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은 착각”이라면서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의학

‘성서한국전국대회’ 가보니...

매미 울음소리 가득한 한여름, 여름방학을 맞아 한산해진 대학 캠퍼스가 때 아닌 청년들의 출현으로 분주해졌다. 3일 오전 ‘성서한국전국대회’라고 적힌 이름표를 목에 건 20대 청년 수백 명이 강의실 곳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은 볼펜과 노트를 챙겨 들고 빈 강의실 번호를 확인하며 속속 자리에 앉았다. 총남 건양대 논산캠퍼스 의용캠퍼스에서 열린 2017성서한국전국대회(성서한국·조직위원장 황병구)에 참가한 청년들의 모습이다.

대회는 ‘청년이 묻고 소명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앞서 2일 개최됐다. 성서한국전국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성경적 대안을 고민하는 청년 집회다. 2002년 성서한국 수련회로 시작해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았다.

3일은 대회 둘째 날. 오전부터 ‘소명의 재구성’을 주제로 대학 1~2학년생이 들을 수 있는 기초강

좌와 3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강좌가 여러 강의실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각 강의실은 빈자리 없이 학생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노트북이나 필기구를 꺼내 내용을 정리하거나 강의에 집중했다.

기초강좌를 맡은 양희송(청어람

서 참가했다”며 “사회선교나 복음전도 중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이번 대회 프로그램엔 사회선교 박람회도 포함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청년아카데미 등 21개 단체가 캠퍼스 내 실내체육관에 홍보 부스를 설치했다. 학생들은 부스에 들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묻고 안내자를 챙기며 관심

형원 목사가 나섰다. 김 목사는 ‘기록의 소명’ ‘일상적 소명’ ‘비전적 소명’이라는 내용으로 저녁집회에 서 세 차례 말씀을 전한다.

그는 2일 저녁집회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듯 신자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와 악한 영에 대적하는 것”이라며 “세상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록의 소명”이라고 설교했다. 이어 “

기독교청년들, 사회적 책임·소명 의식 깨웠다

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현장을 찾았다. 김 전 의원은 ‘세상을 바꿀 정치’를 주제로 청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크리스천인 그는 “정치활동 시절 내가 나온 기사에 하루 65명의 악물이 달린 적도 있었다”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마음으로 정치를 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 주강사는 성서한국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울 하나의교회 김

하나님께 순종하면 때로 자신이 어려서게 느껴지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게 옳다는 걸 믿는 사람이 소명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500여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5일 오후까지 3박4일간 진행됐다. 김 목사는 “성서한국을 통해 기독교청년들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마랑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인 충남 서천군 비인항(마랑진) 일대에 대한 ‘유네스코(UNESCO·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적극 추진된다. 교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이 일대 성역화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총무인 박영률(하나로선교회) 목사는 7일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래지인 마랑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정도의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목사는 “성경의 전래야말로 오늘날 한국기독교의 놀라운 발전을 선구한 역사였다”며 “한 알의 밀알이 교회를 넘어 한국사회 현대화의 밑거름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랑진은 1816년 9월 영국 군함 알제스트호와 리라호의 함장이 마랑진 첨사 조대복과 비인 현감 이승렬에게 영어 성경을 전해준 장소다. 영국 군함들은 해상 교역로를 확보

하기 위해 우리나라 서해안을 탐사하다 마랑진을 방문했던 터로, 조선 왕조실록과 영국 문헌 등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서천군기독교연합회(회장 김기선 목사)와 서천군은 2004년 종교계와 학계의 고증을 거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념비·기념관을 건립하며 성역화사업을 추진해왔다. 기념관 인근에는 성경 전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기념공원도 설치돼 있다.

마랑진은 한국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1858-1902)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아펜젤러는 성경 번역을 위해 인천에서 목포로 향하던 중 선박 충돌 사고로 인근의 여청도에서 순직했다. 그를 기리기 위한 ‘아펜젤러 순직기념관’과 부속건물인 배우처출이 이곳에 건립됐다.

한편 이 일대에선 오는 10월 제1회 마랑진 러브레터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 행사 역시 최초의 성경

전래지인 마랑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지역축제로, 서천군기독교연합회와 서천군, 대한민국기독교박람회 등이 공동 주최한다.

페스티벌 조직위 관계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낸 복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라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또한 답장을 써서 보내자는 의미로 ‘러브레터 페스티벌’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소개했다.

조직위는 이 축제를 상징화해 매년 개최하고, 구약시대의 ‘성막’을 재현할 계획이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뒤 광야생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설치했던 장막으로 된 성전이다. 상설 공영장과 가정 ‘크리스천 컬처타운’도 조성할 방침이다. 가수 민혜경, 배우 정운택, 아나운서 최선규씨 등이 홍보대사로 나선다.

백성기 페스티벌공동운영위원장은 “마랑진이 성역화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한국교회와 성도에 자긍심을 주는 것은 물론 후세가 주목하는 뜻 깊은 문화 사적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광주 기독교 발상지 양림동, 복음의 성지로

호남신학대 인근 기독교 문화유산 즐비

성인 걸음으로 걸으면 반나절 정도 소요되는 광주시 남구 양림동의 역사 돌레길 ‘양림길’의 출발점은 양림동 주민센터다. 총 길이 4.5km 돌레길 초입에 서면 마치 1900년 대 초 광주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지난 28일 방문한 양림길에서는 당시 선교사들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양림길은 선교사들의 이름을 따 ‘브라운 길’ ‘세필 길’ ‘유진 벨 길’ 등으로 명명했다.

1899년 전남 최초의 서양의료소인 목포진료소를 세운 뒤 양림동에서 복음을 전했던 의료선교사 오웬(한국명 오기원)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각을 비롯해 호남신학대 캠퍼스 언덕에 자리 잡은 선교사들의 묘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광주기독교병원 1대 원장을 지낸 윌슨(한국명 우일선) 선교사와 피터슨 선교사, 브라운 선교사 등의 사택과 유진벨(한국명 배유지) 선교사 기념관,

커티스메모리얼홀, 구 수피야여고에 남아있는 윈스브로우홀도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영화로도 소개됐던 독일 출신 세필(한국명 서서필) 선교사를 비롯해 양림동에서 사역했던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 중 대부분은 호남신대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있다. 모두 22명의 선교사들이 안장돼 있는 묘역은 순교 신앙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호남신대 정문을 지나면 ‘가을의 기도’로 유명한 다형 김현승의 시비도 볼 수 있다. 책 모양의 돌 위에 가을의 기도를 새겼다. 한센병 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최홍중 목사의 삶과 신앙도 엿볼 수 있다. 이들 유적 외에도 돌레길 주변엔 400년 넘은 호랑가시나무와 참나무, 도토리나무가 군락을 이룬 숲이 있어 걷는 내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양림동은 전통 한옥과 서양식 건

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야외 선교 박물관’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동네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세계의 각기 다른 ‘양림교회’가 이웃해 있을 만큼 선교의 전통도 깊다.

양림동은 전남 지역 최초 선교사였던 유진 벨이 선교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다. 2008년 광주시 역사문화마을로 지정됐다. 이 양림동 선교 유적들이 조만간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씨양림동산의 꿈(이사장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올 3월 양림동에 사무실을 열고 내년 2027년까지 10년 동안 양림동 일대에 흩어져 있는 선교 유적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기독교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김희재 당시 광주지검장(현 의정부지검장)과 같은 광주시 기관·단체장들의 주도로 시작된 관광 인프라 육성 사업이다. 광주시의 경제와 문화, 선교 분야의 관광자원을 종합 개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교도소 선교칼럼 (27)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도관 (간수)들의 고충

교도관이란 구치소나 교도소에 근무하며 수감자를 감시하는 공무원 직렬을 이르는 말로서 과거에는 간수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재소자들을 영적으로 돕는 것에 사역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간수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14년간 근무하며 신실한 기독교인 교도관들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잘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재소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적으로 보이 되어 주며 그들에게 유익한 조언을 하므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교도소를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교도소에 오랫동안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그들은 그곳을 떠납니다. 하지만 교도관들은 그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므로 저는 오랫동안 많은 교도관들과 친구같이 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교도관들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 그들과 문제가 있으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교도관과 친구가 되면 그들의 배려를 통해 재소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자신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소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애써주는 교도관들의 배려를 통해서 사역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도관들은 목회자나 사역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하는 일에 대해 존경심이 생겼고 그들의 고충 또한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간혹 방송을 통해 문제를 일으킨 경찰의 이야기가 보도되거나 하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교도관들은, 그들이 기독교인 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한 상황과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평화롭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소자들의 변화를 소망하며 교도소 내에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 경찰이나 교도관이 없

다면 우리는 평화나 정의를 상실한 무법지대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타인이나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을 감금하는 교도소가 없다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법이 엄격하여 꼭 범죄자들만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유턴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서, 너무나 가난해서, 그리고 추운겨울을 길거리에서 지낼 수가 없어서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도관들은 재소자들끼리의 싸움을 말리다가 목에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했을 때는 그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재소자가 끝내 사망하게 되면 교도관들은 그러한 죽음에 대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들을 함부로 대하는 재소자들도 있습니다.

하루는 한 교도관이 제게 한 재소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한 재소자가 교도관들을 대할 때는 정신없는 사람같이 그들을 무례하게 대하는데 목사님 앞에서는 정상인이 되어 공손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재소자들은 재가 교도소에 교육이기 때문에 저에게 늘 공손합니다. 하지만 재소자들 중에는 교도관들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도관에게 침을 뱉거나 오줌을 던지는 등 모욕을 주는 재소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교도소 사역을 하며 교도관들의 애환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도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 재소자들을 주로 대하므로 선한 사람들을 대하지만 당신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하니까요."

교도관들은 일정이 바쁘면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재소자들이 법정에 가야 되거나, 학과 과정 수업에 들어가게 되거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 때, 변호사를 만나거나 할 때 쪽사를 해서 마약이나 잘못된 것들이 교도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소자들의 식사시간이나 간호사들이 약

을 주는 시간, 편지를 나누어주는 시간, 화장 지등 필수품을 나누어주는 일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돌봐야 하므로 그들의 마음과 몸은 쉴 새가 별로 없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 교도관에 얼굴과 손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교도소 안에 싸움이 있었나요?"라고 물었더니 그는 그냥 웃으면서 "이건 보통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했지만 그 말을 듣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한 한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패닉 재소자가 그 교도관이 스페인어를 모르는 줄 알고 그에게 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성격이 나빠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도관들은 삶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재소자들과 시간을 보내다보니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은 12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며, 3개월마다 교대로 낮일과 밤일을 바꿔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최근에, 교도소에 있는 병무실에서 한 재소자가 쇠로 만들어진 문을 부수질 것같이 두드리고 차면서 계속 고향을 지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병무실에 방문이 필요할 때만 가끔 가므로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을 그곳에 들었을 때 잠시 들었을 뿐이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교도관들과 간호사들, 또 정신과 의사들은 많은 고충을 겪었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밖에서 마약을 하다 들어온 경우일 때가 많은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도관들은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미국에 교도소 교도관들은 경찰직분속에 있는데 교도소 밖에서 순찰 도는 일을 한다거나 또는 법정에서 일하는 교도관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의 협박으로 인해 총을 가지고 다니도록 되어 있으며 일을 마치고 교도소를 떠날 때도 총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든지 경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총을 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자신들의 안전을 희생시키며 일하고 있는 경찰들과 교도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인해 교도소에 재소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게 하시니라"(딤후2:1-4).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폭우성 장마가 끝이 나면서 무더위가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또 다시 미사일을 쏘며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이웃 사람들까지도 우리나라를 염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겸비해야 함을 알리시기 위함이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웃 스와지의 여러 상황도 그리 독특하지 않지만 이 역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통해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땅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 및 추진

7월말까지 충남대학교병원이 주도하여 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떤 기관에 제출하려던 일은 몇 가지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좀 더 내실을 다진 이후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웃 보건국을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을 우선 계속하기로 하였고, 또 계획된 전문의 초청사역에 더욱 진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31일 방문

지난 7월에는 31일의 방문으로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13일에 삼성의료원의 김은상 교수님(신경외과)이 오셔서 스와지센터 및 왕실병원에서 진료를 하시고 또 로밤바클리닉에서의 통증진료를 하시고 19일에 대니는 짧은 일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또 16일에는 대전성모병원의 김수미 교수님(산과)과 충남대병원의 장창은 선생님(유방외과)이 오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곳 조산원들을 대상으로 두 번의 워크숍을 담당하셨고 특히 이들을 위해 실제 함께하는 실습도 시키는 방식으로 하셔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두 곳의 클리닉에서의 이동진료사역과 스와지센터에서의 자문진료를 담당하시는 등 바쁜 일주일간을 보내시고 22일에 떠나셨습니다.

함께 도착한 장 선생님은 4주 예정으로 스와지센터 및 정부중앙병원에서 주로 유방외과 분야의 자문진료를 담당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도 같은 일정에 두 곳의 클리닉에서의 이동진료사역을 추가하면서 섬기실 것입니다. 또 스와지 PMCI가 진행하는 어린이 영양식 공급사업 및 시골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위한 위생팩 보급사업에도 동행하면서 이곳의 필요들을 살피기로 하였습니다. 세분 모두가 앞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동역하며 방문해주시길 것을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큰 힘이 됩

스와지랜드

니다. 16일에는 3년째 방문하시는 전희재 교수님(해운대백병원 흉부외과) 윤명희 교수님(부산대 외과) 부부와 박상현 교수님(해운대백병원 비뇨기과) 공지영 약사님 부부 및 전주, 남하원(고등학교)의 부산분이 도착했습니다. 전, 윤교수님은 3군데 정부병원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shunt수술을 하였고, 박 교수님은 주로 TUR수술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분야 모두 이곳에서는 할 수 없는 분야라 남아공으로 보내서 수술을 했었는데 이 또한 이를 담당하는 파탈라재단의 열악한 재정으로 더 이상 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 때에 오셔서 열심히 섬겨주시니 환자들 뿐 아니라 담당자 및 보건국 쪽에서도 매우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환자들의 독특한 혈관상태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shunt수명이 1년 정도 내외로 너무 짧아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기에 이곳 보건부에서는 더 많은 의료진이 더 자주 방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한국의 여러 선생님들과 잘 의논하여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선생님들을 찾아보아 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의과대학 개설문제

의과대학 문제는 아직 정부 쪽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는 기독교대학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린 'national referral hospital' 건축계획에 의대건립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곳 국립대에 설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남대학교에서 실시한 "스와지랜드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국립대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결과보고를 9월 초에 발표형식으로 하라고 연락이 와서 이를 위해 준비하면서 보고서 작성이 조금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잘 준비하고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꼭 필요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기도합니다.

7월 초에 잠시 귀국하여 고신의대를 방문하고 학장님을 뵈었습니다. 앞으로 의대개설 시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했고 적극적으로 동역하기로 자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신의대뿐 아니라 고신대 병원과도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는 5분(김규남, 윤완규, 안수나, 전자용, 신은혜)이 정기후원 또는 특별후원으로 새롭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귀한 후원금 잘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내 광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선영 드림
sykim@cnu.ac.k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501)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성령):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평일 새벽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평일 새벽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새벽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psattle.org	안다루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and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역: (501)94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org	앵커리지벨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역: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노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m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 펴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마음도/달빛에 잠기고/밤상도/달빛에 잠기고//여름에는 저녁을/마당에서 먹는다/밥그릇 안에까지/가득 차는 달빛//아! 달빛을 먹는다... 어느 시인이 표현한 여름의 한 부분인데 정말 멋지죠?

▶4 교회에서 온 2개의 단기선교팀

7월 1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3교회 연합 단기선교팀이 10대의 차로 내려와서 매일의 VBS (여름성경학교)는 물론 양로원 방문, 교도소 방문, 어린이 식당 페인트칠과 달동네 한 교회의 건축공사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2박3일 일정으로 내려온 교회는 달동네 교회, 청계천 교회, 무지개 아파트 단지에서 VBS, 미용사역, 의료 사역, 만나 사역과 조그만 학교의 허름한 계단과 대문을 새로이 해주는 사역을 즐겁게 감당하여 주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빴지만 여러 모로 잘 도와준 여러 리더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셔서 귀한 사역을 해주신 샌버나디노 올리브교회, 뮤리엘타 비전교회, 부에나파 캄보교회, 파사디나 드립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여름 수련회 (Campamento de Verano)

7월 하순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멕시코 교회에서 매년 여름 주최하는 청소년 Summer Camp에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보통 10여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는 청소년만 33명, 어른과 아이들 15명, 도합 48명이 되어 커다란 버스도 한 대 빌려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의 말씀 묵상, 낮 시간의 단체정신을 함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맛있는 식사들, 저녁의 메시지 등이 너무 좋았습니다.

금년이 4번째 참석인데 수련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큰 흐뭇함이 있습니다. 갑자기 숫자가 많아지며 많은 참가비와 버스 렌트비, 텐트 구입 등이 필요했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나타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이들 교복 사주기

달동네에 170여명이 공부하는 작고 허름한 초등학교가 있는데 매년 여름 졸업 후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교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학교 로고가 있는 가디건, 티셔츠, 원피스(여), 바지(남), 스웨터, 아무 때나 입는 체육복 중에서 몇 가지를 사주어 이 가난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주변 교회에 출석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학교 졸업생들 중에 10명이 Summer Camp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졸업생이 26명이거나 되어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SF 섬기는교회에서 교복 값 전부를 협조해 주셨습니다. SF 섬기는교회에서 지난 5월 티화나를 방문하며 졸업 예정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에게 학용품들이 담긴 백팩(메는 가방)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린이 식당 (Comedor)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

-안경 선교팀 등 계속 이어지는 여러 다양한 팀들의 방문에 감사.

-영화 상영/교도소 방문/달동네 & 청계천 사역 등 여러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달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합창단 조직을 원합니다. 잘 지도해 줄 지휘자가 연결되게 하소서.

-앞으로 의료 선교팀의 방문도 이어지게 하소서.

-1년 이상 병원에 누워있는 박사무엘 목사님의 사모가 속히 병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아래의 링크들을 클릭하시면 최근의 사역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blog.koreadaily.com/4mexico/1027946>
- <http://blog.koreadaily.com/4mexico/1025530>
- <http://blog.koreadaily.com/4mexico/1026687>
- <http://blog.koreadaily.com/4mexico/964206>
- <http://blog.koreadaily.com/4mexico/957888>

보시고 교회의 모임에서, 또는 개인기도 시간에 기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귀한 기도와 사랑의 선교비로 꾸준히 동역하여 주시는 후원자와 후원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펜을 놓습니다.^^

최재민 선교사 드림
4mexico@daum.net

멕시코

지정 교복 판매소에서 자꾸 다음 주 다음 주... 하며 늦어지고 있는데 엄마들에게 항의 전화를 하라고 했으니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교복이 준비될 것입니다. 청계천 동네 몇 아이와 고등학교에 입학한 몇 아이들 교복도 준비해 주려고 합니다.

▶2 교회 건축을 돕고 있습니다.

달동네의 아주 작은 교회의 확장 개축 공사가 진행 중이고, 2년여 공사가 중단된 교회의 건축도 돕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주중 매일 저녁 아이들 먹이는 프로그램이 7년째 진행 중인데 잘 돌기를 원합니다.

▶"Comedor" & "합창단"

청계천 교회의 "Comedor(어린이 식당)"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아주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도 제게는 커다란 행복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엄마들이 조금씩 조금씩 교회로 오고 있어서 이 또한 커다란 기쁨입니다. 몇몇 엄마들이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아서 금번 여름에는 쉬도록 하였습니다. 곧 개학할 텐데 그때 다시 오픈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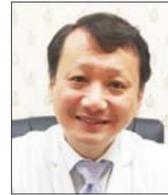
달동네 작은 초등학교 아이들로 합창단 조직을 원합니다. 잘 지도해 줄 지휘자가 연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차례 중단되었는데 다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되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티화나의 옛 청계천 같은 지역에 건축된 교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관상동맥 질환

딱 죄는 듯한 가슴 통증 느낄 때 의심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이나 유방암, 관상동맥 질환 등 과거에는 한국인들에게 흔하지 않던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질환은 초기에 진단,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축업에 종사하는 김씨는 50대 후반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해왔는데 3개월 전부터 운동 중 가슴에 통증이 오는 것을 느꼈다. 통증 부위는 왼쪽 가슴이고 딱 죄는 듯

한 느낌이였다. 운동을 멈추면 통증이 약 5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통증이 생길 때마다 숨이 조금 차는 것도 느꼈다. 처음에는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던 김씨는 통증이 계속 재발하자 병원을 찾아왔다. 김씨는 15년 전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아 왔는데 꾸준한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으로 잘 조절되고 있는 편이다. 3년 전부터는 고지혈증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해왔다. 가족 중에는 형이 심장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답례는 10년

전에 끊었고 술은 가끔 와인 한 잔 마시는 정도였다. 김씨를 검진했다. 키 168센티미터에 몸무게가 80킬로그램인 비만체형이고 혈압과 혈당은 정상이었다. 심장에서 심잡음이 들리는 것 외에는 정상이었고 심전도도 정상이었다. 기본 혈액검사도 정상이었다. 운동부하 검사를 했는데 이상 소견을 보여서 관상동맥 촬영을 하자 3개의 혈관이 막힌 것이 발견되었다. 바로 수술을 했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관상동맥질환, 일명 협심증은 만성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 심장으로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통증은 김씨의 경우처럼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지만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병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김씨의 증례처럼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 지방인 당뇨, 혈압,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선교지 소식

아프간 탈레반·IS, 정부군에 협공 민간인 50여명도 학살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 탈레반과 극단주의 과격단체 이슬람국가(IS)가 손잡고 정부군을 상대로 공격에 나서고 민간인 50여명도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프간 정부군과 16년째 내전을 벌이는 탈레반과 시리아·이라크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최근 아프간에서 세력 확장에 나선 IS가 그간의 반목을 뒤로하고 합동공세를 본격화할 경우 내전 양상이 한층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8일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아프간 북부 사리폴 주 의회의장 모함마드 누르 라마니는 지난 3일부터 탈레반과 IS가 주 내 미르자왈랑 지역을 며칠째 협공한

끝에 이 곳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다른 아프간 관리도 이번 공격에 탈레반 지휘관과 IS 지휘관이 모두 참가했다고 밝혀 양측의 협공세를 뒷받침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어린이 등 50여명이 숨졌으며 일부 희생자는 참수되기도 했다고 현지 관리자는 전했다. 하지만, 자비울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대변인은 "IS는 우리의 적으로 사리폴 지역에 IS는 없

다"며 "탈레반이 IS와 손잡았다는 주장은 탈레반과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정부의 선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IS 지휘관이라고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이는 탈레반 소속이며 탈레반의 명령을 따른다고 덧붙였다. 탈레반은 또 자신들은 민병대 28명만 사살했을 뿐 민간인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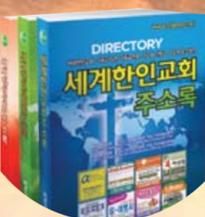
앞서 존 니컬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아프간에서 다양한 테러집단이 한데 뭉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의 주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민간인 살해에 대해서만 비난했다.

가니 대통령은 성명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또다시 여성과 어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면서 "이들의 야만적인 행위는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며 전쟁범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8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8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록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7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7년 9월 30일**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유료 광고 안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15.5cm × 5.8cm	\$350.00	
전면1/4	7.7cm × 11.7cm	\$250.00	
	15.5 × 2.8cm	\$250.00	
	7.7cm × 5.8cm	\$250.00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료 리스팅 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주소록 광고담당 직원 모집: "2018년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에 삽입되는 광고 세일즈 할 분을 모집한다. 좋은 조건의 커미션을 제공한다. 지역은 미 전역과 한국, 전세계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718-886-4400)과 LA(323-665-0009), 이메일(뉴욕 nychpress@gmail.com, LA lachpress@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8.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

1) 구원의 확신을 100퍼센트 갖게 되었다

목사 사모였지만 필자의 신앙생활은 지식적이요 형식적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이었고 구원의 확신이 전혀없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는 구원의 확신을 100퍼센트 갖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필자의 마음에 파도처럼 넘쳐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신만을 위한 나 중심의 삶으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남보다 더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물질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세상적인 것에만 집착했다. 그러나 필자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고 영적인 일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다.

그 후 필자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 삶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4) 주의 종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필자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목사직을 의사나 변호사나 약사 같은 세

일하는 하늘나라의 대사인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는 다시 목사직을 집어 치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자신의 약사 직업을 집어 치웠다.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남편 목사가 목회를 잘 감당하도록 오늘날까지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동역하고 있다. 그 후부터는 목사와 결혼한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중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

5)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변화되었다.

(1) 기도생활 성령세례를 받기 전에는 기도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또 하려고 노력도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생활이었고 아주 약한 기도생활이었다. 기도를 한 5분만 하면 다 할 것이 없고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 잠생각이 들

그 후 필자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 삶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나의 직업 중의 하나로 생각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받은 교육이나 업무활동에 비해 사례비가 적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컸다. 더구나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목사와 사모 그리고 목사 가정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이 힘들고 불만스러웠다. 그래서 필자는 여러 번 목사직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남편을 많이 괴롭혔다.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성직자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모로서 사명감이 없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나는 종종 남편에게 "I LOVE YOU BUT I HATE YOUR JOB!"(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직업은 싫어요)하면서 갈등 속에 괴로워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목사는 세상 직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하여 부르시고 기쁨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을 깨달았다.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는 영적 의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서 기도생활을 잘 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 필자의 기도 생활을 형식적인 기도생활에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생활로 변화되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었고 자신을 성찰하며 부끄러웠던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주시는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매일의 삶을 통해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필자의 상처받고 깨진 심령을 성령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셨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밝히며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심으로 필자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셨다. 특히 방언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더 깊고 더 폭 넓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은사라고 본다.

hslee39@sbcglobal.net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25)



이희숙 사모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2)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났다.

전에는 삶에 기쁨이 없었고 오히려 짜증스러운 일이 많았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었다. 과거에 느껴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기쁨이 내 심령 속에서 샘솟처럼 솟아남을 경험하게 되었다.

전에는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뿐이었다. 전에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였다. 이제는 감사를 많이 하며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전에는 필자를 비판하고 어려움을 주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무조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변화를 체험했다. 진정으로 과거에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3) 삶의 목적이 변하자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나 자

매일가정예배

이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다 그 말을 옮겨 여기더라(삼하17:1-4)

본문은 암살품의 반역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암살품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다윗성을 차지하고 다윗을 없애기 위해 마지막으로 군사회의를 소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왕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하는 마지막 과제를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라를 이끌던 무모사 즉 아히도벨과 후새가 그 모략으로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말을 꺼낸 아히도

벨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모략을 제의했습니다. 이 모략은 다윗을 없애기에는 정말 좋은 모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살품은 후새의 모략도 들어보라고 하더니 결국 후새의 모략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가장 위대한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화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삼하17:5-13)

후새의 모략은 시간을 두고 모든 군사를 모집해 한꺼번에 다윗을 초토화 시키자는 모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윗을 치러가지는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이 택해졌으면 다윗이 큰 위험을 맞을 뻔했는데 암살품이 후새의 모략을 택함으로써 다윗은 또 한번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이미 암살품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가 다 옮겨 여겼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갑자기 후새의 모략을 택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시기에 악인의 어떠한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삼하5:14)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삼하15:31 "축이 다윗에게 고하되 암살품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아히도벨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아히도

벨이 암살품에게 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 간절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목 한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삼하17:15-22)

본문은 후새의 작전이 다윗에게까지 전달돼 다윗을 살려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새가 제사장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알려줍니다. 제사장들이 두 아들들에게 이 소식을 다윗왕에게 전하라고 해서 떠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수상하게 보고 암살품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때 갑자기 나타난 계집종이 암살품의 정탐꾼에게서 두 아들을 우물 속에 숨겨줌으로써 결국 제사장의 두 아

들은 다윗에게 급히 피하라는 소식을 전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새벽까지 요단을 건넌으로써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장면입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항상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금 스스로 목매어 죽으매(삼하17:23)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사람은 너무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앞날을 예언하는 뛰어난 능력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했으니 다윗은 이미 요단을 건너 위험에서 벗어났고 이제 암살품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자기는 다윗에게 죽

게 될 것은 내다본 것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순진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만약 아히도벨과 같은 상황을 만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주시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목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삼하17:24-29)

다윗은 암살품과 대치하며 여전한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마하나임에서 또 다시 다윗을 돕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암살품과 일대 결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지쳐 있고 약해져 있

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래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다윗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늘 남을 돕더니 지금 심는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도움이 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96-5770</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82)2-2646-3191-3, (82)2-2646-3184</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90-9998, Fax: 3927-1008</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팩스: (02)389-2235</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팩스: (011)82-2-842-1968</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926-4508, Fax: (82)2-926-4509</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Tel: (82)842-6881, Fax: (02)842-688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Tel: (82)32-527-1009</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793-7740</p>

인/터/뷰

사단법인 CTS 인터내셔널 회장 주대준 장로

“추락한 한국기독교 위상 회복에 앞장서고파”

“CTS 인터내셔널을 통해 추락한 한국기독교의 위상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지난 4월 사단법인 CTS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취임한 주대준 장로는 한국기독교의 위상이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 CTS 인터내셔널이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CTS인터내셔널(이사장 감경철 장로)은 지난 1995년 한국내 기독교 TV 채널로는 최초로 설립된 CTS기독교 TV가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했다.

주대준 회장은 CTS가 한국교회 위상회복에 기여를 해야 하는 이유로는 CTS 설립이 한국교회와 함께했기 때



역구를 맡게 됐습니다. 지역구에서도 지역 민심은 저를 높이 지지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공천과정에서 옥쇄 파동 등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당선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CTS 요청으로 지난 4월 CTS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래는 2009년에 CTS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세상경험을 더 많이 해보기 위해 사역을 미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북한과 교류하며 하나가 되려면 통일선

교육, 은퇴목회자관리, 탈북자관리 및 평신도 세우기 계획 통일시대 리더는 기독교인이야...통일선교사 양성 시급

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5년 한국기독교 교단들이 출자해서 설립된 것이 CTS 기독교TV입니다. 이는 CTS가 한국기독교와 운동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교계의 온갖 부정으로 인해 한국기독교의 위상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 CTS를 통해 한국교계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 회장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 은퇴목회자관리, 탈북자 관리 및 평신도를 세우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의 핵심은 목회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목회자 은퇴이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기에 온갖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CTS인터내셔널이 기독교계를 위한 NGO로서 은퇴 목사, 은퇴 선교사들이 마음껏 사역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면 어렵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과거 미국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지 않았느냐?”며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으며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는 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교수와 부총장으로 몸담았던 카이스트와 총장으로 사역했던 선린대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CTS에 사이버대학을 세우고 이를 통해 목회자 재교육 및 평신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저희 CTS에는 에듀TV가 들어와 있습니다. 에듀TV를 통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방과후 교육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는 또한 한국기독교가 앞장서야 할 방안으로 탈북자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35,000명의 탈북자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85명이 범법자로 감옥에 가 있으며 100여명이 알코올중독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탈북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통일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탈북자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통일을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즉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회장은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북한선교를 부르짖고 있으며 시행하고 있지만 모래성과 같으며, 따라서 CTS인터내셔널이 탈북자교육을 통해

북한선교를 감당할 것이라 말했다.

“새 정부의 방향이 북한과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 탈북자들이 4차 산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그들 중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CTS 사이버대학 북한선교대학에 채용해 북한선교에 동참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1989년 청와대 전산실 창설 팀장으로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후 20년 동안 5명의 대통령을 보필하며 전산실장, 통신처장, 행정본부장 및 경호차장을 지낸 주대준 회장은 청와대 재임 중에

청와대 기독신우회를 창립해 선교 회장을 역임했으며 경호차장 재임 중에는 ‘한국기독교공직자선교연합회’를 결성해 임법·사법·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100만 공직자 선교에 앞장섰다.

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한 것이 인연이 돼 새누리당에 영입됐던 주 회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경기도 광명을 선거구 국회의원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 주 회장은 낙선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다.

“저의 생활신조 중 하나는 ‘내가 그 만다고 해도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원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진출하게 돼있었는데 지

교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통일시대 리더는 기독교계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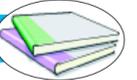
주대준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NPS 정보시스템과학 석사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사이버보안 박사학위를 받았다. 청와대 대통령경호실의 전산실 개발팀장으로 섬기면서 경호 시스템을 최첨단의 IT기술로 변화시켜 ‘경호 과학화’를 이뤘다.

청와대 정년퇴직 후에는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해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선린대학교 총장을 거쳐 새누리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국가 사이버안전연합회 대표 회장과 국가 스마트산업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국 1500여 교회와 뉴욕 프라미스교회 등 간중집회를 인도하며 평신도 복음사명자로 잘 알려져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이며 한기총 직장선교위원장(상임위원), 국가조찬기도회 이사, 월드비전 이사, 누가선교회장 등 초교파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준호 기자)

책 소개



“너 진짜 목사냐?”

저자 손형식 목사

위싱턴필그림교회를 개척하고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는 손형식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후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글들을 모아 “너 진짜 목사냐?”(쿰란출판사 350쪽)를 출간했다.

분서는 제 1부 ‘너 진짜 목사냐?’ 제 2부 ‘설마 지옥에야 가겠어요?’, 제 3부 ‘갑히 예수님까지 시험한 마귀가 나를 가만뒹유?’로 나뉘어 수록한 총 35편의 글을 통해 선조 때부터 내려온 신앙을 이어받아 자신의 것으로 지키려는 씨들과, 하나님을 열망한 야곱의 그 씨들의 고백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저자 손형식 목사는 “너 진짜 목사냐?” 이 질문은 항상 자신을 괴롭히는 말이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며 “나는 진짜를 진짜로 믿고 성도들을 진짜로 바르게 가르치고, 진짜로 바르게 인도하여 천국에 임성시키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분서에서 저자는 “인생의 삶과 신앙이 무엇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고백



이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예수님이 해답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불신하며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한다.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불신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목사들이 책임이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결국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 목사가 무너지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직이(목사가) 죽어서 성경이 죽고, 성경이 죽으니(혼합, 자유, 다원) 성전이 죽고, 성전이(예배가) 죽으니 성벽이(세상과 구별하는 거룩한 성벽이) 무너진다”고 괴적하며 “사역자들이 먼저 깨어서 진짜 목사로 만들어 달라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목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동원 목사는 추천사를 통해 “손 목사는 평신도 사역의 모범을, 늦은 목회에서 오후 5시의 포도원 일군의 모범을, 그의 리더십에서 이웃 사랑의 전염성을, 그의 복음의 열정에서 사도바울의 귀감을 느꼈다”고 말하며 모든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라고 본서를 추천했다.

손형식 목사는(전 베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의 형) 아메리칸드림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이민 왔다. 이후 워싱턴DC의 한인감리교회, 워싱턴침례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겼으며 지구촌교회(이동원 목사 시무)에서 음악담당 전도사, 성경강해 전문사역자로 14년간 활동하다 미 남침례신학교(M.Div)를 졸업한 뒤 뒤늦게 목사안수를 받고 1998년 워싱턴필그림교회를 개척했다. 현재 그는 은퇴를 준비하며 후임자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

책은 미주 내 각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성자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7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Table with 4 columns: 학부, 학과, 학년, 졸업 및 동등학력자

Table with 4 columns: 대학원, 학과, 학년, 졸업 및 동등학력자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2"×2") 2매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2 원서접수마감 : 2017년 9월 1일(금) 오후6시
3 입 학 시 험 : 2017년 9월 2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4 개 강 부흥회 : 2017년 9월 5일(화) - 9월 7일(목) 저녁 8시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